

독립운동의 세 가지 길

-실력양성운동과 외교투쟁을 중심으로-

지난해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은 구한말 한성(서울)을 배경으로 합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사연을 간직한 청년들이 누구는 총으로, 누구는 펜으로, 누구는 회의와 관망으로 혼란한 조국의 현실을 마주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극 중 낮에는 사대부 양반가 규수로, 밤에는 의병으로 활약하는 ‘애기씨’ 고애신은 말합니다. “글은 힘이 없습니다. 저는 총포로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에는 세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930년대까지 활발했던 테러·암살 및 의병 거사를 통한 무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족기업을 육성하고 한인들의 계몽에 힘쓴 실력양성운동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국제사회에 일본 식민지배의 부당함과 한인들의 독립을 호소한 외교·언론 투쟁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은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 됐고, 국제사회에 독립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지난한 노력 끝에 1948년 비로소 건국과 동시에 스스로 서게 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 의원실은 대학생 단체 한국대학생포럼과 함께 독립운동의 세 갈래 길을 짚어보고 식민지 시대 청년 지식인의 삶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또 이어지는 한성투어에서는 한성에서 전개 됐던 독립운동 터를 돌아봅니다.

진행	박종선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사회	여명 (서울시의원)	
발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김용삼 (前월간조선 편집장)	우남의 길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인촌의 길
	전창렬 (한국대학생포럼 학술국장)	식민지 시기 조선 청년 지식인
한성 답사 강의	황인희 (두루마리역사교육연구소 대표)	아관파천길-> 독립신문사터->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정동교회-> 舊러시아공사관-> 아관파천길-> 동아일보 박물관 -> 광화문우체국(한성감옥터) ->종로 만민공동회 터

- 일 시: 2019. 3. 23. (토) 14:00-17:00
- 장 소: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 대회의실
- 주최: 서울시의회 주관: 여명 서울시의원, 한국대학생포럼

독립운동의 세 가지 길

류석춘
(연세대 교수·사회학)

1. 독립운동의 세 가지 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독립운동 노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만주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군대나 경찰 혹은 행정기관 나아가서 일본 제국주의의 핵심 인물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무장투쟁’ 노선이다. 일제의 강점 1년 전인 1909년 안중근의 의거로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이 노선은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1920년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노선은 일본의 강력한 통제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1932년 김구가 이끈 임시정부의 주도로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무장투쟁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은 중국 공산당 혹은 소련 공산당에 소속되어 그들의 지휘를 받는 활동이었다. 일본의 감시와 통제가 심했던 만큼 이 노선은 독자적인 활동이 어려웠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이 인접한 국가에서 폭력투쟁을 용인하는 공산당 세력에 의지하며 활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독자적인 무장투쟁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노선이 보여준 성과 그리고 한계는 아래 이영훈 교수가 2007년 기파랑에서 출판한 『대한민국 이야기』 중 ‘독립운동의 실태’라는 글에서 잘 드러난다.

둘째, 국내의 민족주의 노선이 추구한 ‘실력양성’ 노선이다. 일제가 강점한 한반도 내부로부터 역량을 키워 장차 다가올 독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 학술 언론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노선이다. 그러나 이 노선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해외에서 추구한 독립운동 노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총독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추구한 사람들은 오늘날 친일 논란에 일부 휩싸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이 모두 해외로 나가지 않는 한 이 노선의 중요성과 의미를 폄하할 수 없다. 동아일보와 고려대학교를 세워 민족의 역량을 키운 김성수 그리고 그런 형을 물심양면으로 뒷받

침한 동생 김연수의 모습이 이를 잘 드러낸다.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 김성수·김연수 두 형제의 활동 중 최소한 형 김성수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1962년 김성수에게 추서된 건국공로 훈장이 이를 상징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만든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으로 마침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4월 대법원은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하여 그에게 주었던 건국훈장을 박탈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인촌이 세운 고려대학교 앞의 도로명을 ‘인촌로’에서 ‘고려대로’로 바꾸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주대한 선생은 2019년 3월 광주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의 강연을 했다. 우리가 곰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래에 전문을 옮긴다.

이 글은 또한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동생 김연수에 대한 평가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49년 반민특위 재판부는 고심 끝에 김연수를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글에 포함 된 반민특위 재판부의 김연수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미 당시의 재판부가 오늘날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좌파 단체가 제기하는 여러 쟁점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며 검토한 결과로 그러한 판결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판결문이라 읽기 쉽지 않지만, 오늘날 해독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정한 전문을 아래 붙였다.

셋째,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미주에서의 ‘외교독립’ 노선이다. 식민지 상황에서 즉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외교에 의해 독립을 추구하는 노선은 언론이나 출판 혹은 대중집회 그리고 로비 등을 통해 각국의 여론 나아가서 세계 여론에 호소하여 한국의 독립이 필요함을 알리는 노력이다. 이 노선은 또한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외에 진출한 한국 동포들을 교육하고 계몽하여 그러한 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도 포함한다.

이승만이 이러한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수학한 기간을 포함하여 35년 가까이 미국에 머물며 이 노선의 활동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1941년 여름 미국에서 영문으로 출판해 베스트 셀러가 된 책 *Japan Inside Out*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비봉, 2015] 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일본의 미국 공격을 예언했다. 진주만 공격이 있기 6개월 전의 일이다. 그는 또한 이 책에서 그로 인해 일본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한국은 독립의 기회를 잡을 것이라 말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펠릭은 이 책에 관한 서평을 *Asia* (1941년 9월호) 에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무서운 책이다. 나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오직 너무 진실인 것이 두렵다.” 이승만은 또한 하와이에서 ‘태평양잡지’ 등을 발행하고 ‘한인기독교학교’ 등을 세워 동포를 계몽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노선을 두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즉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노선이었다는 비아냥도 한다. 하지만 이 노선은 해외에 진출한 한민족 내부의 역량에 기초해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만큼 무장투쟁 노선같이 한민족 외부 공산 세력의 지원 내지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장점 그리고 일제나 총독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이승만이 남긴 기록과 활동을 살펴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쉽게 알게 된다. 이승만은 초지일관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또한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이 친일파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빌미는 건국 직후 진행된 친일청산 과정에서 반민특위 활동을 일부 견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시 준동하던 남한 공산화 책동에 대응해야 하는 이승만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948년 새로 탄생한 국가의 건설을 주도해야 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으로서는 이미 사라진 적 일본을 따랐던 ‘친일파’를 정리하는 일보다는, 이제 새로 등장한 적 북한을 따르는 ‘공산세력’을 상대로 투쟁하는 일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남북한의 친일청산 과정을 비교하면 더욱 확실하게 이승만의 손을 들어 줄 수 있다. 류석춘·김광동이 「시대정신」 2013년 (봄호)에 발표한 논문 “북한 친일청산론의 허구와 진실”이 이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2. 무장투쟁 노선 독립운동의 실태 (이영훈 2007 『대한민국 이야기』 기파랑, pp. 190-4.

남한의 역사교과서나 많은 연구서를 보면 1920년대 이래 만주와 중국에서 ‘무장 독립 전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독립전쟁은 드디어 1944년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연합군과 합동으로 국내로의 진격작전을 준비하였으나 미국이 너무 일찍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통에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애석해하는 서술로 독립전쟁의 역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1985년 판 국정 교과서에서 관련 서술을 찾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합군이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광복군은 그해 9월에 국내 진입을 실행하려던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채 광복을 맞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과장이거나 실태와 동떨어진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주별판에서 독립군이 일본군과 독자의 힘으로 전투를 벌인 것은 3·1운동 직후인 1920년 한 해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北路軍政

署)와 흥범도 장군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는 서로 합심하여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이 그것이지요.

이후 일본군의 추격을 받은 독립군은 연해주 소련령인 알렉세예프스크로 퇴각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정파 간에 독립군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큰 내분이 벌어지고 그 틈을 타서 소련 적군(赤軍)이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강요하여 수백 명이 사살되는 등, 독립운동사에서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유시참변’이라고 하지요. 이후 독립군이 일본군과 유격전이든 진지전이든 독자의 전선을 형성한 적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항일연군과 팔로군에 속한 조선 청년들의 무장투쟁이 전개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과 중국 간 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항일연군의 영웅적인 전사의 한 사람으로서 양정우 장군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보다 상위의 연대장급 인물이었습니다. 1990년 저는 중국 선양(瀋陽)의 역사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양정우의 위대한 항일투쟁이 커다랗게 그림으로 전시되어 있더군요. 반가워서 자세히 읽어 보았더니 조선 출신이란 말이 없더군요. 민족사의 비극을 다시 한 번 실감한 대목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국제적 조건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미국, 소련, 중국 등 연합국의 어느 정부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거나 임시정부 독자의 군사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을 정도로 임시정부의 대표성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은 이념이나 노선에서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체적 조건도 부족한 가운데 임시정부를 지원한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장차 일제로부터 해방될 한반도에 걸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1941년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국광복군행동준승(準繩)’을 임시정부에 강요하여 광복군을 중국군 참모총장의 통제하에 둡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시정부의 조소앙 외무부장이 주중 미국대사에게 중국이 일본의 패배 후에 다시 한국을 중국의 종주권 하에 두려고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정도의 차가 있겠지만 중국의 공산당 정부나 소련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차 일제로부터 해방될 한반도에 다른 누구보다 자신이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강대국 간의 긴장관계가 벌써부터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요컨대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이러한 긴장관계의 국제질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거나 발언권을 확보한 조선인의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어디까지나 일제의 부속 영토였

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의해 해방되었다고는 하나 그 국제법적 지위는 1910년 대한제국이 패망할 당시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한제국의 패망은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한국의 현대사에 드리웠습니다. 그 깊은 상처는 2007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업이 역사가라서 더욱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한제국의 패망이란 아픈 상처를 지금도 간혹 가슴의 통증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3. 김성수에 대한 주대환의 평가 (2019 3 12, '행동하는 자유시민' 광주광역시 시국강연)

1980년에 저는 스물일곱 살이었습니다. 부마항쟁을 포함하여 세 번의 전과가 있는, 민주화운동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다 듣고 보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광주시민이 피로써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지켜야 하는 민주공화국의 군인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을 때, 광주시민은 분노했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국민이 또 분노했습니다. 지금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당시에 광주시민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하여, 함께 싸우지 못한 데 대하여 미안해합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시민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역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광주시민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면 바로 호남과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열지 않겠는가,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등의 나라이고, 모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 세력들이 내놓은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는 논의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나중에 공식적으로는 제헌국회에서 다루어졌지만, 그것은 이미 초안이 다 만들어져서 형식적인 절차로 토론하고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곳은 인촌의 사랑방이었습니다.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권력구조가 만들어진 곳도 인촌 사랑방이고, 농지개혁의 근거가 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정된 곳도 인촌 사랑방이었습니다.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가 바로 인촌이 키운 사람이고 보성전문, 지금의 고려대학교 교수였습니다. 흡사 젊은 글쟁이 최남선이 손병희 선생의 뜻을 받들어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썼듯이 젊은 유진오가 인촌의 뜻을 받들어서 제헌헌법을 기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기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문위원들 절반이 인촌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촌은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고창 출신의 김성수 선생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 조직과 자금을 다 댄 사람입니다. 3.1 운동은 손병희 선생이 조직과 자금을 댄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건국은 김성수 선생이 조직과 자금을 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무식한 놈들이 인촌을 부관참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1962년에 추서된 건국훈장을 박탈하고, 고려대학교 앞길 이름을 '인촌로'에서 '고려대로'로 바꾼다고, 명패를 바꾸어 달고서는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고려대학교를 없애지, 고작 거리 이름 명패를 바꾸어 달고서는 만세 부르다니, 가소롭고 웃기는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인촌의 흔적이 지워지겠습니까?

인촌 김성수 선생은 온갖 굴욕을 참고 인내하면서 오해를 무릅쓰고, 전국의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힘을 모아서 동아일보를 만들고, 고려대학교를 만들고 경성방직을 세웠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제대로 된 언론사요, 규모 있는 대학교요, 본격적인 근대 산업이고, 제조업 주식회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성방직 같은 큰 산업체를 수 천, 수 만 개 가진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바로 경성방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키운 기술자와 엔지니어와 경영자들이 해방으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장들을 돌렸던 것입니다.

모두가 비분강개하고 술 마시고 있을 때, 인촌은 조용히 인재를 기르고, 실질적인 일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유학비를 대주어서 일본이나 미국, 영국 가서 과학과 기술을 배워오라고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 앞에 나서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 다. 그는 진정한 근대인이고, 세계시민이고, 영국식 실용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후배 청년들에게 연설하면서 목 놓아 절규했습니다.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 실력 없이 무슨 독립을 합니까? 독립을 말로 합니까? 그런데

안창호의 절규에 가장 충실하게 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촌 김성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그를 친일파로 모는 자들이야말로 배은망덕한 놈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그분의 은덕을 입고 그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남의 집 머슴살이라도 해서 먹이고 재워서 키워놓았더니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무슨 일이든지 부모 탓을 하는 배은망덕하고 철없는 자식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철없는 짓을 자꾸 하면 하늘이 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여 우리 후손들이 거지가 되어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배고파서 울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늘이 무섭고, 또 선생님께 죄송하여, 개인적으로 작년에 고창 인촌 생가에 들러서 고개 숙여 사죄를 했습니다. 또 난생 처음으로 인촌이 정성을 쏟아 세운 고려대학교 본관도 둘러보고, 그 앞에 서있는 선생님의 동상에도 절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낸 그 시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군국주의자들의 미친 광란에 속마음이야 어떻든 일단 걸으로는 박수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태평양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문이 다 폐간되고 유일하게 발행되던 총독부 기관지를 보고서 선불리 판단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북한에서 김씨 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로동신문> 기사를 근거로 해서, 김일성 동상에 절한 사람, 충성 편지 쓴 사람 모두 세습독재 부역자로 처벌하자면 몇 사람이나 해야 할까요? 북한 인구의 절반쯤 해야 할까요? 아마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당장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74년이 지난 후에, 그때 대통령을 누가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씨 조선 잔재의 청산이 아직 안 되었다고 외쳐야 할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아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더 올바른 기준을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민특위의 조사 대상에도 오른 적이 없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친일파니 뭐니 하는 것은 실로 건방진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살아있던 해방 정국에서 반민특위도 설치되었고, 조사도 하고 재판도 했습니다. 그랬지만 인촌은 조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방 정국에서 선생님은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만약 인촌이 진짜로 친일

파였다면, 누가 지도자로 모셨겠습니까? 인촌은 좌익 쪽에서 발표한 인민공화국에도 문교부 장관으로, 요즘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인촌은 누구나 당연히 인촌의 것이라고 생각한 종로 지역구를 월남한 조선민주당 부당수 이윤영 목사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추대로 제2대 대한민국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한 인물이고 호남이 낳은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인촌을 부관참시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팔십 노인도 해방 당시 다섯 살 어린아이들인데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그 무슨 광복회다, 뭐다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반일 캠페인 앞장서고 있지만, 공부 안하면 모르기는 늙거나 젊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역사의식의 발로이거나,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 정신병의 발작이고 콤플렉스와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험한 것은 그런 광란이 대한민국 가치와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나라,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발휘하고 노력하여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운동을 해주시라고 말입니다.

이런 운동에는 당연히 한일친선도 연관된 과제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식민지로 지배한 것은 제국주의 일본이지 민주주의 나라 일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나라 일본은 대한민국과 공통의 가치를 나누고 있는 우방국입니다. 그런데 반일 민족주의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자꾸 100년 전, 80년 전, 잘 알지도 못하는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녀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 교정에서 새삼스럽게 일본 나무라면서 아름다운 고목들을 뽑아내고, 음악 선생 하셨던 분들이 일제 말기에 무슨 단체에 이름 올려서 무슨 대단한 영화를 보았다고, 그 무슨 대단한 친일파라고 교가를 바꾸라고 으박지르고 있습니다.

만약 김대중 선생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짓을 찬성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반대하셨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할까요? 우선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모두가 반일 민족주의 선동을 하고,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김영삼 정권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친일잔재를 청산한다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중앙청을 허물어버리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김영삼 특유의 혀 짧은 경상도 사투리로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 반면에 김대중 정권이 가장 안한 편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반일 민족주의 캠페인을 반대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진짜로 김대중 선생이 친일파로 몰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 수 년 질질 끌던 한일회담이 마침내 타결되어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선생은 자신의 긴 정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1964년부터 65년 사이에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격렬하던 때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야당 정치인들과 학생들, 청년 지식인들이 한일회담과 국교정상화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의원, 홀로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동지들로부터 ‘사꾸라’, 즉 여당의 첩자로 몰렸습니다. 그러니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김대중이는 친일파라고 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옳았음을, 그 분이야말로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여 무역을 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대일 청구권 자금과 차관으로 경제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중국이 문화대혁명이라는 미친 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중국이란 거대한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에 수출을 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반일 민족주의의 광란에 맞서 싸우자, 아무데나 소녀상 세우기를 거부하고, 유서 깊은 광주일고를 비롯한 많은 학교의 교가를 바꾸자는 전교조의 무모한 제안을 거부하고, 멀쩡하게 살아 있는 나무 뽑아내기도 거부하고, 고창군민들에게 ‘인촌로’의 도로명 바꾸기를 거부하라고 격려하고, 인촌 김성수 선생을 되살리는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주시민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운동을 하고, 인촌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의 실용주의 정신을 되살리는 운동을 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흔내고, 영화 한 편 보고서 탈원전을 막무가내 주장하는 영터리 환경단체들을 GIST 학생들과 함께 비판한다면 혹시 ‘진보’가 반발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까?

저는 바로 그런 사태야말로 우리가 무서워서 피해야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진영논리에 갇혀서 할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금기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외쳐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가짜 진보 친북 주사파, 전대협 출신 386 정치인들, 상위 10% 공무원과 공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민주노총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그들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도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 북한 인권의 참담함을 말하면 극우가 되고, 김정은 독재정권을 비판하면 보수가 되고, 반(反)평화주의자가 됩니까? 그러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미국 민주당 출신이죠, 그런 분들,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모두 한국 민주당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민족주의라는 독주, 아니 독약에 취해서 지성이 마비되고, 이상하게 친북적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상실하고, 개념을 상실한 한국의 진보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잣대로 보면 가짜 진보라는 것입니다. 자유도 평등도 인권도 모두 잊어버린 진보가 무슨 진보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기존의 진보와 보수를 다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뜻을 모아 함께 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진영논리 따위는 무시하고 또 그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운동이 대한민국과 호남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틀림없이 열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김연수에 대한 1949년 반민특위 재판부의 판결문 (『수당 김연수』 pp. 261-276)

... 재판관과 검찰관의 뒤를 이어 서순영 재판장이 어두운 얼굴로 들어섰다. 찌는 듯이 무더운 장내는 일시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이윽고 서순영 재판장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경성방직(京城紡織)을 경영함에 있어서 강력히 일본 자본과 싸웠고, 항상 한민족(韓民族)을 위한 경제적 기반 확립에 노력하였고, 경성방직의 상표를 태극기에서 모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행위는 많이 참작(參酌)할 것이 있으며 그 외(外)의 관직(官職) 및 명예직(名譽職)은 일제(日帝)의 압력에 못 이겨 피동적으로 맡은 것이라고 증명되며 또 피고는 한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많은 학생에게 원조(援助)를 하여

그의 혜택을 입은 자의 수는 현재 수백 명에 달하는 것이니 이 점으로 피고가 남긴 공훈(功勳)은 크다 할 것이며, 기타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볼 때, 피고를 단순히 친일 및 반민족 행위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以上)과 같은 사실들을 들어 피고는 형사소송법 362조에 의하여 주문(主文)과 같이 무죄임을 판결한다.

단기(檀紀) 4181년 특형공 제9호

판결(判決)

본적(本籍) 서울시 동대문구 성북동 41번지

주소 동(同) 상(上)

회사원(會社員) 김연수

당(當) 54년

우자(右者)에 대한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부는 검찰관 심상준의 관여(關與) 심리(審理)를 마치고 판결함이 좌와 여(如)함.

주문(主文) 피고인은 무죄(無罪)

이유(理由)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21년 3월 일본 경도(京都) 제국대학(帝國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그 익년(翌年)부터 1945년까지 경성방직주식회사 남만방직주식회사 중앙상공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하여 기타 15개 회사의 중역을 거쳐 조선 실업계(實業界)에 상당한 권위와 존재(存在)를 보유(保有)한 자로서, (1) 1933년 0월 0일 불상(不詳) 경기도 관선(官選) 도의원에 임명되었고, (2) 1939년 0월 0일 불상(不詳) 만주국(滿洲國) 주경성(駐京城) 명예총영사(名譽總領事)에 임명되었고, (3) 1940년 0월 0일 불상(不詳) 총독(總督)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칙임(勅任) 참의(參議)에 임명되었고, (4) 1940년 0월 0일 불상 민간인으로서 결성된 임전보국단(臨戰保國團)의 간부에 선임되었고, (5) 1942년 0월 0일 불상(不詳)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 사무국 후생부장(厚生部長)에 임명되었고, (6) 1942년 0월 0일 불상(不詳) 학병제도(學兵制度) 동경(東京) 유세단(誘說團)에 참가하여 명치(明治)대학 강당에서 연설로서 청년학도의 출정(出征)을 권유(勸誘)한 등 일본의 전쟁 완수를 위하여 적극적 협력한 반민족행위자라고 함에 있다.

생각해 보면 반민족행위라는 것은 반국가행위와는 다소 이념을 달리하는 논리적 관념으로서 19세기 이래 비로서 발전된 민족주의를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한 것인 만큼 이것을 법률적 규범으로서 파악하기는 자못 곤란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것을 따지는 뜻은 민족의 긍지(矜持)와 순결(純潔)을 위하여 그 단결(團結)을 공고(鞏固)히 하고 그 도의(道義)를 앙양(昂揚)하여서

정치적으로는 자주(自主)의 정신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는 자치(自治)의 기초를 확립하여 세상의 여하(如何)한 경우(境遇)에 봉착(逢着)하더라도 민족적으로 생사를 같이하고(死生同守) 대의(大義)를 지키자는 것이 그 핵심이 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기미운동(己未運動)이야말로 상술(上術)의 사상과 정신을 체현(體現)한 것이며 우리 민족의 민족적 의무야말로 이 운동의 선언에서 대중성(大衆性)을 가지게 된 것을 비로서 인식(認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족 마찰(摩擦)과 국제(國際) 상극(相克)은 역사상 불가피(不可避)의 사상(事象)일 뿐 아니라 민족운동의 과정에 있어서도 정세(情勢)의 변천(變遷)과 시일(時日)의 경과(經過)를 따라 그 파동(波動)에 소장(消長)이 있게 되는 것인 바, 피압박(被壓迫) 민족으로써 이러한 처지를 경험하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민족 통제(統制)의 자유와 역량(力量)이 없음(烏有)에 귀(歸)하고 비참(悲慘)한 현실(現實)만이 그 민족의 생활과 행동을 지배하게(制) 됨으로 결국 대중은 향배(向背)를 주저(躊躇)하고 혼미(昏迷)하여 백이숙제(夷齊)의 정절(情節)을 모르는 것은 아니로되, 부지불식(不之)의 사이에 민족의 대의보다 자아의 구출(救出)에 급(汲)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또한 사상불무(史上不無)의 사실(事實)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於是乎) 광복(光復)의 날을 맞이하여 민족 심판의 대상을 논위(論爲)하게 될 때 우리는 모름지기 엄숙한 자기반성과 냉정한 사적(史的) 고찰에 입각하여 민족 전체를 죄인시(罪人視)하는 회의(懷疑)를 피(避)하고 오직 세인(世人)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皆曰可殺) 저주(口誅)를 받는 자만을 뽑아서 바꾸어 말하면 적극적으로 민족의식을 떠나서 적의 세력을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여 동족을 박해하였거나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직권(職權)을 남용(濫用)하고 동족(同族)을 희생(犧牲)케 하였거나 민족적 비극이 눈앞(目睫)에 있는 무자비(無慈悲)한 정책(政策)임을 앎(知慮)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적의 환심을 위하여 자진(自進) 아부한 자 등을 징치(懲治)하여서 민족 대의의 상존(常存)한 바를 선명(宣明)코져 함이 본법 제정의 목적인 동시에 헌법 101조의 조문(立言) 가운데 소위 악질이라는 취지도 또한 이와 동의(同議)라고 해석치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반족(反族) 행위가 앞에서 말한 바(說示)와 같이 원래가 법률 이전의 관념이지만 이것을 법률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處理) 하고자 하는 이상 모든 것을 법률적으로 이해하는 외에 다른 요구(要求)가 있을 수 없으므로 본법(本法)의 각죄(各罪)를 논단(論斷)함에 있어서도 형사 책임의 일반 이론에 쫓을 뿐이요 만연(漫然)히 문리(文理) 문구(文句)에만 얽매여(拘泥) 그 해석을 자의로 함과 같은 것은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일이다.

과연 그렇다면 반민족행위처벌법 제4조 제1, 2, 3호의 입언례(立言例)도 결코 무슨 직계(職階) 위별(位別)을 표준(標準)하여 구체적인 범죄를 선언한 바가 아니요, 다만 그러한 지위와 신분이 있던 자는 반민족의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표현된 개괄적 규정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 및 증인 김상형의 당(當) 공판(公判)에서의 공술(供述)과 조사위원회 조사관 서상열의 증인 김용완 동(同) 박석기 동(同) 최두선 동(同) 조병상 등에 대한 신문 조사 중 피고인의 성행(性行) 사업(事業) 및 공직(公職)에 이름을 내게 된 경위에 관한 공술(供述) 기재(記載)를 종합(綜合) 토구(討究)하여 보면 피고인은 1921년 4월 일본 경도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청년학구(靑年學究)이며 몸에 백만(百萬)의 부(富)를 가진 지방(地方) 재벌(財閥)로서 재학 당시부터 일생 실업인(實業人)으로 종시(終始)하

여 조국의 장래에 기여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거듭하던 차에 때마침 기미운동(己未運動)의 자극을 받아 우리 한인의 손으로 설립 및 경영하던 경성방직주식회사(이하 경방이라 칭함)가 재정난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여러 우인(友人)의 종용에 의하여 1922년 4월 피고인이 이를 인수 경영하기로 하고 전무(專務) 취체역(取締役)의 자격으로 동사에 입사한 것이 실업계 진출의 효시인 동시에 우(右) 경방(京坊)이야말로 민족적 자본과 민족적 정열을 근저(根底)로 한 근대적 경공업이 조선에 수립되던 맹아(萌芽)인만큼 피고인의 우(右) 입사(入社) 당년(當年)부터 적(敵) 일본의 대방직(大紡織)이 본격적으로 실행(實行)한 조선 진출의 계획에 대하여는 경방의 존재가 눈 속의 가시가 될 것이며 또한 일방직(日紡織)의 우(右) 진출(進出)이 경방에 대하여는 유일한 위협이 아니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밖으로 강적과 싸우고 안으로 빈곤에 울면서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힘써 사운(社運)을 파산의 위기에서 만회하고 기술을 다년간의 노력으로 습득하여 최초 기계 70대로서 착수된 회사가 점차 900대로 발전한 1935년 피고인이 동사(同社)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어서 방기(紡機)를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방직회사의 면목을 세워 예의(銳意) 사운(社運)의 발전을 위하여 악전고투한 나머지 현재 동사로 하여금 방기 3,300 추(錘) 직기(織機) 1,227대 최고 연생산 면사(綿絲) 200만 관(貫) 광목(廣木) 80만 필(疋)에 달하는 대회사(大會社)를 이루게 하였을 뿐 아니라 1939년 9월에는 일(日)방직(紡織)의 대공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 시설(施設)이 오히려 경방(京紡)을 능가할만한 정도로서 봉천(奉天)에 자매(姊妹)격인 남만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그 공적은 적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경방 기업이 결코 민족정신을 버리지 아니한 증좌(證左)로서는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전술과 같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수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투지로서 최후까지 분발하여 일본 자본에 매수(買收) 내지(乃至) 타협이 되지 아니한 점과 경방 자본의 표시(表示)인 각(各) 주권(株券)이 무궁화의 회란(繪欄)에 태극기를 모사(模寫) (증 제1, 2호)하여서 은근히 민족혼을 상징한 점과 경방의 생산 광목 선전 포스터에 역시 태극기를 상표 (증 제3호)로 한 사실 등으로 보아 능히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생활이상과 활동성공에 비추어 본건 공소 사실을 전면적으로 음미(吟味)하건대 피고인이 본건 수사 기관의 문초(問招)로부터 당(當) 공정(公庭)에 이르기까지 본래(本來) 일체의 공직과 절연코자 한 것이 자기 처세상(處世上)의 신조(信條)이었음에 불구하고 제2차 대전의 말기에 와서 비로서 약간의 공직에 이름이 나게 된 것은 당시의 소연(騷然)한 사회적 물정이 개인 생활에까지 긴박하여 도저히 자유의사의 용납이 되지 못한 소이(所以)라는 취지의 일관(一貫)한 변해(辨解)는 가(可)히 수긍(首肯)할만한 점이 없지 아니하다.

1933년 경기도 관선(官選) 도의원 임명의 사실(제1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당 공정(公庭)에서의 공술(供述) 및 조사위원회 조사관 서상열의 증인 박석기에 대한 심문 조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 고찰하면 당시 피고인은 전라남도 장성 소재의 자기 농장에 출장 중이었는데 의외에도 도지사 와타나베닌(渡邊忍)으로부터 관선 도의원을 임명할 터이니 승낙하여 달라는 전보가 왔으므로 대단히 불쾌히 생각하고 즉석에서 거절의 회전(回電)을 치고 약 일주일 후에 귀경(歸京)한즉 이미 임명(任命)의 발표(發表)가 있었으나 하등(何等) 개의(介意)치 않고 그 임기의 3년간 한 번도 출석이 없어 그 자리는 사실상 결원(缺員) 상태로 공석(空席)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事實)을 인정할 수 있으며, 4272년 6월 만주국(滿洲國) 주경성(駐京城) 명예총영사(總領事) 임명의 점(제2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증인 노동철의 당 공정(公庭)에서의 공술과 아울러 조사위원회 조사관 서상열의 증인 최두선에 대한 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을 감고(勘考)하면 당시 왜정(倭政) 당국이 명예총영사 선정의 국제적 규례(規例)에 의하여 실업계 인물 중에서 그 후

보자를 물색한 결과 피고인을 내정하고 외사부장 송택(松澤)이란 자가 희락(喜樂) 요리점에서 피고인을 재차 초청하여 내의(內意)를 전하고 승낙하기를 간청하였으나 시종 불응하였더니 세 번째는 또 같은 장소에 피고인을 불러놓고 이것은 총독 각하의 명령이니 거절하면 안 된다고 위협적 태도를 취하므로 부득이 승낙한 것이요 사무(事務) 방면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이 다만 간판(看板)과 도장(圖章) 각일개(各一個)가 인계(引繼) 물건으로 수수(授受)된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며(본 사실은 반민법 해당 사실이 못 된다고 인정하나 피고인의 변해(辨解)에 대한 종합적 자료로서 편의상 일괄 적기(摘記) 함) 1940년 5월에 중추원 칙임참의에 임명된 점(제3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공술 및 조사위원회 조사관 서상열의 증인 최두선 동 백관수(白寬洙)에 대한 신문 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어느 날 피고인이 경방 사무실에서 신문을 본즉 의외(意外)에도 최린, 이병길 피고인 등과 같이 중추원 칙임참의로 임명된 발표(發布)가 있었으므로 너무도 불쾌하여 즉시 중추원을 찾아 갔던 바 점심시간이 되어 대부분의 직원은 퇴실하고 모(某) 서기관 1인을 만나게 되었다니 동인(同人)의 말이 덮어 놓고 칙참(勅參)이 된 이상 총독 이하 각 고관(高官)에게 인사의 말을 하라는 거동(舉動)으로 보아서 거절이 용이치 않을 줄을 알았으나 내무국장 상량(上瀧)은 다소 안면이 있고 해서 좌우간 만나기로 하였더니 그 자는 당장(當場) 관료(官僚) 냄새를 내며 피고인에게 훈시 비슷한 말을 하면서 임명의 경위에 대하여 본래 당신이 이런 방면에 출명(出名)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전(事前) 교섭(交涉)은 오히려 거절로 끝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협의가 없이 한 일이니 미안하나마 양해하여 주어야 된다고 간절히 부탁하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말하고 무슨 변통(變通)을 희망하였으나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주위의 압력에 부득이하여 2~3차 본회의에 출석한 정도로서 묵종(默從)의 태도를 취하였지만 한 번도 발언한 일이 없이 우상적(偶像的) 존재로 지냈다는 것은 왜(倭) 당국이 패전의 말기적 현상에 당황하여 우리 한인(韓人)의 전체적 협력을 가장(假裝)하고 경내(境內)의 인심을 고무(鼓舞)하기 위하여 생각이 있든 없든 각계(各界)의 중진급 인물을 억지로 데려다 필요한 각 기관에 책임(責任) 배치(配置)케 한 당시의 사회 정세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를 주저코저 아니하며 1940년 0월 0일 불상(不詳) 임전보국단을 결성하고 그 간부에 피선(被選)되었다는 점(제4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공술 및 조사위원회 조사관 서상열의 증인 조병상에 대한 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어느 날 박흥식으로부터 긴급(緊急) 요담(要談)이 있다고 화신(和信) 사장실까지 내방(來訪)을 청한 전화가 있었으므로 즉시 왕방(往訪)한 즉 조병상, 한상룡, 윤치호, 고원훈, 민규식 등 민간인과 총독부에서 계광순(桂珖淳) 종로경찰서에서 일인(日人) 형사 1인이 이미 회합(會合)하여 피고인의 내참(來參)을 대(待)하여 박흥식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이 있고 이어 조병상으로부터 약 300만원 정도의 기금을 각출(釀出)하여 애국운동단체를 조직하자는 요지의 연설이 있었던 바 그 회합에서는 관변 사람이 참가된 만큼 이론을 제기할만한 분위기가 못되어 모두 결론적으로 무슨 단체든지 조직하자는 찬성적 말만이 있는 다음 주로 윤치호의 앞선으로 수일 후에 임전보국단이라는 단체가 출연케 된 것이나 피고인은 박흥식에게 우리 실업인은 이런 운동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직분(職分)이 아니라고 그 가입(加入)을 고려하자는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고인의 부지중(不知中)에 그 단체(團體)의 1인으로 선정되었다는 말만을 들었을 뿐이요 한 번도 회합에는 출석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1942년 0월 0일 불상(不詳)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후생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점(제5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공술 및 조사위원회 조사관 서상열의 증인 신기창에 대한 신문 조서 기재를 검토하면 피고인은 1942년 11월 중 남만방직주식회사에 출장하여 봉천(奉天)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동맹통신(同盟通信)으로부터 연맹 후생부장에 임명되었다고 인사의

전화가 있어 비로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나 확실하지 않던 차에 수일 후에 사무(事務)상 사정으로 승낙을 받지 못하고 후생부장에 임명한 것은 미안하나 양해하여 달라고 한 취지의 총독부 관리(丹下) 명의의 전보가 와서 확정적으로 임명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원래가 칙임(勅任)인만큼 연맹을 위하여 활동한 사실은 물론(勿論) 없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백방(百方)으로 고심한 경위를 인정 할 수 있으며 1942년 0월 0일 불상 학병제도 동경유세단에 참가하여 명치대학 강당에서 청년 학도의 출정을 권유하였다는 점(제6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증인 윤현배의 당 공정에서의 공술(供述)를 고합(考合)하면 우(右) 동경 출장은 당시 총독의 명령으로서 만부득이한 사정이요, 절대 자의가 아닐뿐더러 소위 강연 당시에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극히 낮은 목소리로 시종 밑만 바라보고 안면(顔面)을 들지 못하였으며 그 소요 시간도 약 3, 4분 정도로서 학생출정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역설한 것이 아니요, 오직 소위(所爲) 유세단이 동경까지 오게 된 경위를 말한 정도였으며 동 대학에서 행한 종합적 강연을 마친 후에는 즉시 순천당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타 대학에서 행한 계속적 강연에는 참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또한 인정할 수가 있다. 요컨대, 본 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자유 의사에서 결과된 사실이 아니요, 당시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협박으로 말미암아(증 제 8,9,10,11,12 각호 협박장) 일종의 항거기 어려운 주위 사정에서 반사적으로 취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시인되며 달리 우(右) 시인(是認)을 반복할만한 하등(何等)의 증거가 없을뿐더러 도리어 증인 현상윤, 주병표의 당 공정에서의 공술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교육 및 사회사업 일반을 개관하건대 1930년부터 1946년까지의 사이에 우리 기미운동의 책원(策源) 장소요, 광주학생사건의 본영적(本營的) 학교인 중앙중학교 및 보성전문(고려대학의 전신)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중앙학원에 현금 250만원, 전지(田地) 97정(町) 사반구묘보(四反九畝步)를 기증하여(증 제5호 증명서) 그 경영의 기반을 삼게 한 이외(以外)에 장성중학교 외 7 중등학교 및 성북초등학교 외 10개 소학교 기타 교육단체 학생단체 등에 대하여 제공한 기부금품이 전지(田地) 629정보, 현금 370만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직접 경영인 재단법인 양영회(증 제7호)에서 1939년부터 1948년까지의 사이에 학교 및 연구비 급여액이 323만 90원으로 그 수급(受給) 인원이 전문(專門) 및 대학생이 392인 중학생 220인 수(受)연구비(研究費) 입학자(入學者) 59인 양행(洋行) 유학생 보조 6인을 헤아리며 경방 및 남만방(南滿紡) 출신 기술자로서 현재 대한민국 각지의 섬유공업회사(적산)를 장리(掌理)하고 있는 인원이 최광원 외 34인에 달하며 기타 재해(災害) 구휼(救恤) 체육보급(體育普及)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 사업 등은 일일이 셀 수도 없을 뿐더러 피고인의 직영 사업체인 전시(前示) 경방의 방계(傍系)로서 금융(金融) 제사(製絲) 정미(精米) 농사(農事) 및 상공(商工) 관계 각 회사를 잇다라 세워 민족적 산업 개발을 위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실의 성과로서 현재 중앙 고려의 양 학교를 졸업한 무려 6~7,000명의 문하인(門下人)을 비롯하여 양영회(養英會) 원조로서 자연과학 방면의 이승기 공학박사 외 다수의 학자를 배출케 한 사실과 현 섬유공업계의 기술진영 편성이 가히 경방의 독담장(獨擔場)이 되어 있는 사실 등은 피고인의 교육산업 및 사회방면에 새긴 위대(偉大)한 공적(功績)으로서 특기(特記)할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및 증인 주병표의 당 공정에서의 공술을 토구(討究)하면 피고인은 전쟁 말기에 들어 각종 공직의 칙임(勅任)에 견디지 못하여 이를 모면할 방책으로 1942년 11월 경성대학 병원에 40여일 간 칭병(稱病) 입원(증 제 9호 입원 영수증)하여 건강의 불량을 빙자하고 경방을 제외한 공사(公私) 각종의 직무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결국 중추원 참의 및 명예영사만은 여의치 못하고 고민을 계속한 사실과 피고인의 망친(亡親) 김경중은 고난을 무릅쓰고

조선 문화와 민족 사상의 발양(發陽)에 이바지하고자 1936년부터 전후 18년의 세월을 써서 비밀리에 조선사(朝鮮史) 17권 1질(증 제 4호 존재)을 편찬하고 이것을 사립학교 및 향교(鄕校) 등에 무상 배부한 사실과 피고인의 아들과 조카 10 수인에 대하여는 1인도 왜정(倭政)의 관공서에 취직케 한 사실이 없는 등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과연 피고인의 성행(性行) 사업(事業) 사상(思想) 가정(家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을 진데 우리는 피고인의 공적(功績)을 추장(推獎)할 무엇이 있을지연정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하여 동족(同族)을 구박하고 명예와 지위를 위하여 독립정신을 방해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할 논거는 없으며 위로는 망부(亡父)의 민족정신을 받들고 아래로는 자(子)와 질(姪)의 방향을 탈속(脫俗) 지도(指導)한 피고인이 자기 혼자 세인(世人)의 구주(口誅)를 받는 반족(反簇) 태도를 취행(取行) 할 리가 없으며 피고인이 권력을 동경하고 공명(功名)을 희구(希求)하는 허영심이 있었다면 학창(學窓)을 나와 관료(官僚) 전성(全盛)의 풍경을 목도한 저 대정(大正) 및 소화(昭和) 초기의 관리 황금시대를 버리고 (피고인이 대학을 나와 중추원 참의에 임명될 때까지는 21년의 시일이 지났음) 제복과 전투모자로 언동(言動)이 부자유한 암흑기의 소화 말기를 택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공적을 보아 소위 장공속죄(將功贖罪)의 관용(寬容)을 베풀 수 있거든 하물며 본건 공소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먼저 범의(犯意)의 점에 있어서 이를 공인(肯認)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그 악질 여부를 구명(究明)할 여지도 없이 결국 증거 불충분에 귀착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2조에 의하여 주문(主文)과 같이 판결하노라.

단기 1949년 [단기 4282] 8월 6일

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소 제3부

재판장 재판관 서순영, 재판관 이춘호, 최국현, 신현기, 정흥거

위 글은 수당김연수기념사업회가 1971년 출판한 『수당 김연수』라는 책의 261-276쪽에 실린 “수당의 무죄 판결과 특위 이관” 가운데 최종 판결문이 수록된 Pp 264-275 부분을 2010년 가을 연세대 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재욱이 초역하고, 이를 다시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유광호 선생이 다듬은 다음, 2019년 3월 17일 류석춘 교수가 최종 편집한 결과다.

5. 이승만의 독립운동 노선: 기록을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독립되기까지 이승만이 추구한 독립투쟁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기록을 중심으로 이승만의 일본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두 가지다. 하나는 1904년부터 1944년까지 독립운동을 하며 손수 쓴 이승만의 ‘일기’이고, 다른 하나는 일기를 시작하기 전 한성감옥에 국사범으로 있던 시절 즉 1900년에 원고를 마친 ‘청일전기’다. 이 두 문헌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을 가진 기록이다. 1900년 이승만은 25세의 청년이었다. 일기를 시작한 1904년 그의 나이는 29세였고, 일기를 마친 1944년 그의 나이는 69세였다. 이승만 평생에 걸친 기록들이

다.

5.1. 『청일전기(淸日戰記)』

2014년 북앤피플이 출판한 『청일전기(淸日戰記)』는 청일전쟁(1894~1895)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난 1900년, 만 25세의 나이가 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1875~1965)이 한성감옥에서 순 한글로 원고를 마무리한 책이다. 이승만은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독립협회 간부들과 함께 한성감옥에 투옥 중이었다. 출판은 원고가 마무리 된지 17년 후 하와이 태평양잡지사에서 이루어졌다. 1917년 출판된 『청일전기』(淸日戰記) 서문에서 이승만은 “만일 한인들이 오늘날 유구국(琉球國, 오키나와)이나 대만(臺灣·타이완) 인종들의 지위를 차지하고 말 것 같으면 이 전쟁의 역사를 알아도 쓸데없고 오히려 모르는 것이 나을 터이지만, 우리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여 태평양이 마르고 히말라야가 평지가 될 지라도 우리 대조선 독립은 우리 한인의 손으로 회복하고야 말 터인즉 우리 한인이 갑오전쟁(淸日戰)의 역사를 모르고 지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옥중에서 이승만은 청일전쟁에 관한 중국책 『중동전기본말(中東戰紀本末)』(1897)을 발췌 및 번역하고 그에 더해 “전쟁의 원인” 그리고 “권고하는 글”이라는 논설을 덧붙여 원고를 완성했다. 『중동전기본말』은 당시 중국에서 선교사 겸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알렌(Young J. Allen, 林樂知, 1836~1907)과 중국 언론인 채이강(蔡爾康, 1852~1921)이 공동으로 편저해 1897년 전체 18권(전편 8권, 속편 4권, 3편 4권, 부록 2권)으로 출판한 청일전쟁에 관한 역사책이다. 중국(中國)과 동영(東瀛, 바다의 동쪽 나라 즉 일본)의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책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언론인 유근(柳瑾, 1861~1921)이 돕고 사학자 현채(玄采, 1856~1925)가 발췌 및 정리하고 국한문으로 번역해 두 권의 책으로 묶어 1899년 『중동전기(中東戰記)』라는 이름으로 번역본이 출판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1900년에 쓴 서문에서 이승만은 이 번역본을 참고해 원고를 썼다고 밝히고 있다.

“청일전쟁의 원인” (청일전기에 포함된 이승만의 글)

청국이 일찍 개화하여 자기 나라를 먼저 튼튼히 하고 대만을 개화시켰다면 일본이 싸움을 걸어올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국은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다 조선을 잃어버리고 국제사회에서 큰 망신을 당했다며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건대 만약 대만이 세계정세를 먼저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일전쟁으로 인해 대만이 독립국임이 세상에 알려졌으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대한의 독립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 일본에게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수치다, 사람이 오죽 변변치 못하면 제 권리를 제 손으로 찾지 못하고 이웃 친구가 대신 찾아줄 지경이 되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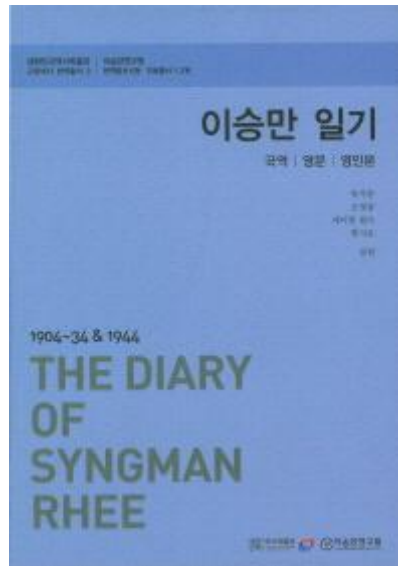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몇 만 명의 목숨을 바쳐가며 잃었던 독립 권리도 찾아서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애초부터 몰랐기 때문에 대한의 독립을 한 번도 주장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일본이 우리 대신 일어나 싸워주고 세계를 향해 생색내며 자랑하자 남들이 모두 의로운 싸움이라고 일본을 칭찬했다, 이는 진실로 우리에게 분하고 원통한 일이다, 대한의 관리와 백성들이 이를 분하게 여겨 내 나라 독립을 우리 손으로 떨쳐 보기를 한마음으로 결심한다면 이 수치를 씻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를 분하게 여길 줄 알려면 먼저 그 내막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보아 외국의 형편과 내 나라 형편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급선무다,

5.2. 이승만 일기

아직 일반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손수 영문으로 쓰거나 누군가가 타이핑을 한 방대한 분량의 일기를 남겼다. 1904년 11월 4일부터 1934년 12월 28일까지 만 30년 그리고 1944년 1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만 1년, 합해서 총 31년간의 이승만 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들 일기는 서로 다른 크기의 수첩, 노트, 일기장, 그리고 타이핑한 B4 사이즈의 종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묶은 편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본은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보관하고 있다.

이 일기는 마침내 2015년 10월 연세대 이승만연구원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국문본, 영문본, 그리고 영인본을 동시에 출판하였다. 『이승만 일기』에 등장하는 일본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 일본이라는

단어가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배제하고, 본격적으로 일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대목을 상당한 분량 찾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골라, 이승만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감 없이 살펴보도록 한다.



1933년 1월 13일 『이승만 일기』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에서 임시정부 전권대사 활동)

... 미 영사관에 들렀다, ... 길버트 영사가 나에게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우리는 국제연맹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지금이야말로 중일 문제를 국제연맹의 실질적인 현안으로 올리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1910년 강대국들은 일본의 세계 정복 계획을 알지 못했다, 단지 한국을 희생하면 일본이 이에 만족하고 만주에서 개방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만 믿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전 세계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은 일본의 침략 야욕의 첫 번째 단계이고 만주가 다음 단계이며,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극동의 평화를 실현하고 국제연맹을 존속시키기 위해 강대국들이 서로 함께 모여 일본을 그들이 원래 속한 섬나라로 돌려보낼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나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지원해 줄 만한 회원국들이 없는지 그의 의견을 구했다, 그는 약소국들이 모두 반(反)일본적이니 당연히 "당신의 동맹국들"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소국들을 길게 거론하며 그들이 돌아오면 나를 그들과 접촉하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 (중략)

5.3. 이승만 기록에 대한 평가

위에서 제시한 이승만의 자필 기록과 출판물을 보고도 이승만이 항일투쟁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청일전기에 실린 이승만의 글은 그가 만 20살 (1900)

에 기록한 것이다. 제네바 국제연맹 활동을 하며 남기 일기는 그가 만 58세 (1933)에 기록한 것이다. 이들 기록 이외에도 이승만은 평생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이들 기록 어디에도 이승만의 친일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승만과 다른 노선 혹은 다투던 노선을 따랐던 사람들의 혐담이 일부 있다. 예컨대, 하와이에서 무장투쟁 노선을 추구하며 '대조선독립단'을 만들어 이승만과 대립하던 박용만, 그리고 하와이를 포함한 미주지역 한인활동의 주도권을 놓고 이승만의 '대한인동지회'와 대립하면서 '대한인국민회'를 이끌던 김현구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덕희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북앤피플, 2015). 역설적이게도 박용만과 김현구는 모두 이승만과 한성감옥 생활을 같이 한 독립운동 초기의 동지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후에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예컨대 김현구는 스스로의 자서전과 더불어 속칭 삼만전(三晩傳)이라고 불리는 '이승만, 박용만, 정순만'에 관한 평전을 영문으로 남겼다. 이 글에서 김현구는 이승만에 대해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내용을 기초로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다. 그리고 이 글은 1987년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서대숙 교수가 *The Writings of Henry Cu Kim: Autobiography with Commentaries on Syngman Rhee, Pak Yong-man, and Chong Sun-man* 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여,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또한 1959년 미국 캘리포니아 Reedley 출판사에서 초판이 출판된 김원용이 쓰고 손보기가 엮은 『재미한인 50년사』 역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일방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세간에 퍼뜨렸다. 이 책은 국내의 '해안' 출판사가 2004년 재간행했다.

이외에도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포시킨 대표적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Richard C. Allen (본명 John M. Taylor) 저, 윤대균 역, 『미국과 이승만』 (원제: *Korea's Syngman Rhee: An Unauthorized Portrait*), 합동통신사 (1961). Quee-Young Kim, *The Fall of Syngman Rhe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1983. 송건호, 『서재필과 이승만』 정우사 (1980). 한승인, 『독재자 이승만』 일월서각 (1984). 김삼웅, 『독부 이승만 평전』 책보세 (2012). 김상구, 『다시 분노하라』 구절리 (2012).

1919년 3.1 운동 직후 출범한 상해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한 후 1925년 이승만이 탄핵당하기까지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방과 모략을 당했다. 예컨대 이승만이 3.1 운동이 발생하기 직전 미국의 Wilson 대통령에게 '장차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을 두고 신채호로 대표되는 상해의 반대파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시기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김규식이 파라강화회의에 제출한 사실을 외면한다 (오영섭, 2012, “임시정부 위임통치 논란” 『한국독립운동사』 41권 1호).

이와 같이 이승만은 경우에 따라 근거 없이 친일파로 매도되기도 했다. 또한 그의 독립운동 방식을 두고 일부에서는 ‘포시랍다’는 비아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기 혹은 친필 원고에서 드러나듯이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식은 당시 최고의 전문성을 구사한 활동이었다. 일본이 처한 국제관계의 약점은 물론 강대국 사이의 역관계를 고려한 판단에 기초해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며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문은 물론 영어로도 책을 쓰고 또 신문방송에 기고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일이 결코 무장투쟁 방식보다 손쉬운 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무장투쟁의 기상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운동이다. 이에 반해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실력자들을 설득하고 또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국내외의 동포들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역사는 이승만의 판단이 정확하였고 결국 승리하였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승만은 위의 기록에 더해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집권한 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반일정책을 펴서 우리 현대사에 크나큰 유산을 남겼다. 6.25전쟁의 와중인 1952년 이승만은 일본에 대한 ‘평화선’을 선포해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나아가서 『유태하문서』(국사편찬위원회, 2015)가 보여주듯이 이승만 집권기간 내내 지속된 일본에 대한 강경정책 덕분에, 1965년 체결한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산업화에 필요한 종자돈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6. 대한민국 건국 = 항일 + 반공

대한민국을 건국한 동력은 무엇인가? 2019년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국가 정체성 논란의 핵심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세계 10위권 수준이라는 평가에 우리는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기준이나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기준은 물론이고 복지제도와 같은 사회적 기준, 나아가서 과학기술 및 생활양식으로 대변되는 문화적 기준에서도 우리는 세계 상위권 국가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번영의 기초를 우리는 언제 놓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출발하면서부터다. 전통 국가 조선도 아니고 일본이 지배한 식민지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 기본 운영 원리로 채택한 대한민국이 국회, 헌법, 정부를 순차적으로 만들어나간 1948년이 그 출발이다.

그렇다면 이를 만들어낸 동력은 무엇이었나? 두 가지 힘의 결합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다.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항일'(抗日)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공산주의와 싸운 '반공'(反共)의 힘이다. 이 두 가지 힘 가운데 하나만으로는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없었다. 항일만 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고 치면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가 되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잠시 역사를 되돌려보자. 항일의 결과로 1945년 해방되고 나니 한반도에는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 다름 아닌 북한 공산 정권, 그리고 이 정권을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스탈린과 마오쩌둥이다. 그러나 당시 남한을 통치하던 미 군정은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소련이 점령한 북한에서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차근차근 만들어지는 과정을 목격하면서도 미 군정은 신탁통치를 추진했다.

또한 신탁통치를 두고 좌파의 찬성과 우파의 반대가 극렬히 대립하자 미 군정은 다시 좌우 합작을 추진했다. 박헌영과 같은 탈법적 좌파 그리고 이승만과 같은 반공 우파 지도자를 따돌리는 대신 미 군정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좌파인 김규식과 여운형을 군정 파트너로 삼았다. 이승만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승만은 동구에서의 좌우 합작이 결국 소련의 위성국 건설을 위한 시간벌기였다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1946년 6월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1946년 3월 토지 개혁을 하는 등 이미 사실상 공산국가를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구의 실패를 겪으며 다행히 미국도 정신을 차렸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곳곳에서 팽창하는 공산주의를 마주하며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1947년 3월 소련과의 냉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선언에 따라 좌우 합작은 동력을 잃었고, 이승만의 반공 노선은 마침내 힘을 받기 시작했다.

그 후 유엔은 1947년 11월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을 결의했고,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그냥 단순히 거부한 것만이 아니었다. 1948년 5월 10일로 예정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북한은 남로당과 좌익 계열을 총동원해 살인, 방화, 파업, 폭동을

일으켰다. 제주의 4·3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은 건국했다. 그러므로 반공은 항일만큼이나 대한민국을 건국한 동력이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힘에서 반공을 지우고 항일만을 내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잘 알려졌듯이 김원봉은 해방 전 공산주의 계열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며 임시정부 좌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해방 후 남한으로 귀국했던 김원봉은 북한으로 넘어가 노동상 즉 노동부 장관을 했다. 그러므로 그는 항일운동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조력자가 되었을 뿐이다. 반공을 뺀 항일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까닭이 이것이다.

김구는 해방 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가장 탁월한 항일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임시정부 우파의 중심 인물인 그는 중국에서 외교·군사·의열 등 모든 분야의 항일 투쟁을 지휘하는 최고 지도자였다. 귀국 후에도 1947년까지는 이승만과 더불어 반탁·반공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그는 1948년 1월 이후 대한민국 건국의 최종 단계에서 공산 세력과 남북 협상을 전개하면서, 5·10 선거를 부정했다. 그래서 김구는 대한민국 독립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대한민국 건국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승만의 외교독립론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 前월간조선 편집장)

I. 이승만의 『한국교회핍박』 저술

이승만은 하와이 교민 유지들의 초청을 받아 1913년 2월 3일 하와이로 가서 교포들이 마련해 준 푸우누이 애비뉴(Puunui Avenue) 2453번지의 집에 입주했다. 이곳에서 『한국교회핍박』이라는 책의 저술에 착수하여 두 달 만에 탈고했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동양에 기독교 국가를 이루게 하려고 특별히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세계열강들은 일본의 우방국이었다. 때문에 친일적이었고, 제국주의 시절이었으니 열강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동에서 식민지를 경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하고 있으니 저들로부터 독립시켜달라”고 해봤자 별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승만은 『한국교회핍박』을 통해 한국은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귀신을 섬기는 나라 일본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니 한국의 기독교도들을 일본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해달라. 한국을 독립시켜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를 독립운동에 연결시킨 것이다.

II. 이승만은 3.1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3.1운동 한 해 전인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신의 프린스턴대학 은사인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하자 그 의미를 꿰뚫어 본 이승만은 한민족이 일본을 향해 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우선 이승만은 미국 내의 교포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국내에서 바야흐로 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 해외교포들은 한층 합심 단결하여 이에 호응할 것이며, 주권회복을 위하여 총궐기할 것을 호소한다.”¹⁾

1) 임병직, 『임정에서 인도까지』, 여원사, 1966, 114~115쪽.

이승만은 자신의 복안을 정리한 후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는 길에 잠시 하와이에 기착한 의료선교사 알프레드 샤록스(Alfred Sharrocks, 한국명 사락수·謝樂秀) 박사를 통해 함태영, 양전백, 송진우 등 지도자들에게 국내에서 결정적인 대일(對日)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²⁾

샤록스 선교사를 통해 이승만은 국내의 개신교 계통의 독립운동가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1919년 초 서울에 도착한 알프레드 샤록스 선교사는 스코필드 선교사에게 미국에서 이승만, 안창호 등이 독립운동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스코필드 선교사는 이갑성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한국에서도 모종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언질을 주어 3·1운동을 지피는데 역할을 했다.

샤록스 선교사는 서울 제증원 의사로 근무하다 평북 선천으로 옮겨 미동병원 원장이 되었는데, 양전백이 선천의 신성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양전백은 기미 독립선언서 33명 서명자 가운데 한 사람, 함태영은 그 뒷일을 책임지는 48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3·1운동에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김성수 회고록, “이승만이 밀사 통해 밀서 보내와 3.1운동 조직”

그렇다면 당시 전국 220개 군 중에 211개 군 100만 명이 들고 일어난 독립만세 봉기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만으로 가능했을까? 고종의 일본 독살설에 분노한 애국심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폭발할 수 있었는가?

월슨 민족자결론이 나온 직후부터 이승만은 국내 동지들에게 구국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증거들을 소개한다.

<1918년 12월 어느 날, 워싱턴에서 재미동포들과 구국운동을 하고 있는 우남 이승만이 밀사(密使)를 보내왔다. 그 밀사는 이런 내용의 밀서(密書)를 휴대하고 있었다.

‘월슨대통령의 민족자결론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될 이번 강화회의를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생활을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미국 동지들도 구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주기 바란다.’

12월이면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시기였다.

인촌(仁村 김성수) 고하(古下 송진우) 기당(幾堂 현상윤) 세 사람은 ‘이제야말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숙직실 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까를 논의했다.>(『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사 발행, 1985)

이승만의 밀서를 받은 김성수는 동지 송진우(중앙학교장), 현상윤과 숙의 끝에 조직이 살아있는 천도교를 동원하기로 하고 손병희의 팔다리와 같은 최린(보성학교 교장)에게 그 제자 현상윤이 설득을 개시했다.

2)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1996, 134쪽.

임영신의 회고 “이승만의 비밀 메시지 전달 받고 전주 만세운동 벌였다”

1918년 스무살 처녀교사 임영신이 천안에서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가르치는 항일운동을 시작했을 때 어느 날 허름한 행상청년이 다가왔다. 당시 독립운동 하는 지하조직 연락원들은 행상차림으로 전국을 돌아다녔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보따리를 풀자 물건들 밑에 뼈라 같은 것이 보였다.

임영신은 그에게 선뜻 속마음을 보일 수 없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넌지시 “이승만 박사”란 단어를 꺼내자 행상의 눈빛이 달라졌다. 임영신은 더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은 지하운동본부에서 왔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행상을 임영신은 와락 끌어안고 말했다. 얼마 전부터 전국적인 통신망을 만든 지하조직, 행상은 몇 장이나 뼈라를 몰래 건네주었다. 거기엔 이승만 박사의 다음과 같은 지령문을 필사한 내용이 선명했다.

“월슨 대통령은 세계평화를 위한 14개조문을 선언, 그 중에 하나가 민족자결권인데 이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한민족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국제적으로 속히 알려져야만 한다. 월슨 대통령이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 뼈라 말고도 임영신은 상하이를 통해서 이승만 박사의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상하이에 서 몰래 전해오는 메시지는 두만강이 얼어붙을 때를 기다려 달려와서 연락원에게 주면 곳곳에 전달되었다. 이때 용기를 얻은 임영신은 본격적인 비밀투쟁에 나서서 다음해 3·1운동 때 전주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임영신 회고록, 『나의 40년 투쟁사』, 2008).

Ⅲ. 이승만,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의회 열다

한국 국내에서 3·1운동이 벌어지자 이승만은 그의 스승 서재필에게 미국 독립의 상징적인 지역인 필라델피아에서 미국판 3·1운동인 한인대회를 소집하고 독립기념관(The Independence Hall)까지 시위행진을 하여 미국 국민과 정부에 한국민의 독립의지를 과시하자고 제의했다.

이승만은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라델피아의 리틀 시어터(Little Theater)에서 제1차 한인의회(The First Korean Congress. 대내적인 명칭은 대한인 총대표회의)를 열어 한국의 독립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 회의에는 이승만을 비롯하여 서재필, 정한경, 임병직, 조병옥, 장택상, 유일한, 장기영, 김노디 등 해방 후 남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한인 대표 120여 명과 미국 정계의 거물급 명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제1차 대한인대표자 총회(The First Congress)는 사흘간 독립선언서 낭독, 건국종지(Aims and Aspirations of the Koreans)를 발표했다. 한인의회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토마스 스미스(Thomas B. Smith) 필라델피아 시장의 양해를 얻어 회의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인디펜던스 홀(독립기념관)까지 비를 맞으며 행진했다.

스미스 시장은 한인 대표들과 함께 시가행진을 했고, 인디펜던스 홀에 도착하여 ‘자유 의 종’을 울렸다. 이승만은 서울에서 반포된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낭독했다. 이때

상하이임시정부 소식을 접한 대표자들은 안에 들어가 이승만을 조지 워싱턴이 대륙회의를 진행했던 의자에 앉히고 독립결의를 다졌다.

유일한이 기초하고 이승만이 다듬은 ‘건국종지’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독립국가 자유민주 공화국의 헌법 대강이었고, 그것은 훗날 대한민국 건국헌법에 반영되었다. 의장을 맡은 서재필은 회의 도중 이승만을 한국인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준비가 잘 된 지도자라고 칭찬했고, 인디펜던스 홀에 도착해서는 이승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의자에 앉도록 배려했고, 회의 종료 때는 이승만에게 만세 3창을 선창하도록 하는 등 이승만을 3·1운동 후에 건립된 새 정부의 최고 지도자로 추대했다.³⁾

이승만은 당시 필라델피아 한인대회에서 서재필과 함께 ‘신대한의 비전’을 구상하고 제시했는데, 이것이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⁴⁾

IV. 한성 임시정부의 집정관 총재에 추대된 이승만

이승만은 1919년 4월 23일 수립된 한성 임시정부가 자신을 집정관 총재로 추대한 사실을 친구이자 배재학당 후배였던 신흥우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한성정부가 선포된 직후 신흥우는 미국에서 열리는 감리교 백주년 기념대회 참석 차 미국 선교사 벡(S. A. Beck)의 가족과 함께 출국했는데, 벡 선교사의 딸 인형 속에 한성정부 문건을 숨겨가지고 나와 이승만에게 전달했다.⁵⁾

이승만은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집정관 총재라는 직함을 대통령(President)으로, 국호를 대한공화국(Korean Republic)으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이때부터 이승만은 대한공화국의 대통령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즉각 각국에 “정부 수립”을 통보하고, 임시정부 승인과 독립지원을 요청했다.

필라델피아 대회를 마친 이승만은 임병직을 비서로 임명하고 워싱턴으로 가서 백악관에 인접한 H가(街) 14번지에 위치한 15층짜리 컨티넨탈 빌딩에 두 개의 방을 구해 ‘한국위원회’(The Korea Commission)라는 간판을 달았다. 이승만이 워싱턴에 사무실을 개설한 이유는 자신의 프린스턴대학 스승인 우드로 윌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어서 그로부터 유무형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다.⁶⁾

8월 25일에는 워싱턴의 한국위원회를 ‘구미위원부’로 개칭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 후 미국으로 온 김규식을 초대 위원장에 임명했다. 허정은 이승만의 부름을 받고

3) 유명익, 「3.1운동 후 서재필의 신대한(新大韓) 건국 구상」, 김용덕 등 편, 『서재필과 그 시대』, 서재필 기념회, 2003, 338쪽.

4) 유명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일조각, 2013, 282쪽.

5) 김권정, 「1920~30년대 이승만과 국내 기독교 세력의 유대활동」,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사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63쪽.

6) 임병직, 앞의 책, 121쪽.

구미위원부에서 통보(通報) 발간, 성금 모금 업무를 맡았다.

이승만은 워싱턴의 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쪽으로 운동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승만은 워싱턴을 중심무대로 삼아 한국의 독립 의지를 미국 언론에 알리고 친한(親韓)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미국 정부와 여론 움직이는 활동 개시

이 와중에 워싱턴의 저명한 변호사 존 스태거스(John W. Staggers)와 인터내셔널 뉴스 서비스(INS)통신⁷⁾의 제이 제롬 윌리엄스(Jay Jerome Williams) 기자와 친교를 맺게 되었다. 윌리엄스 기사는 재치 있는 문필과 사교계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중견 언론인이었다. 그는 존 스태거스와 함께 이승만에게 미국 내 여론형성과 오피니언 리더 계층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조언과 헌신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의 독립이 요원하던 시절 스태거스 변호사는 법률문제 고문으로 맹활약했고, 윌리엄스는 한국의 독립에 관한 선전문을 작성하여 각 언론기관에 배부하여 여론을 환기시켰다. 윌리엄스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제공해준 일제의 기독교 탄압 행위와 이를 증명하는 사진을 제공받아 격정적인 기사를 써서 미국의 각 언론기관과 외국 특파원들에게 제공했다.

스타거스와 윌리엄스의 도움으로 벌인 여론 환기 전략 중의 하나가 일본의 다이쇼(大正) 천황에게 ‘한국 침략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독립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공개서한’ 사건⁸⁾이었다. 이 편지는 이승만의 아이디어를 듣고 스태거스 변호사가 작성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일본은 정의에 입각하여 한국 독립을 승인해야 하며, 이런 용단을 일본이 내린다면 일본은 전 세계 인민으로부터 격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양 평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약 이런 한국민의 선의의 제의를 일본이 거부할 경우 한국민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자유를 획득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본은 영원히 침략자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과 모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공개서한은 일본 정부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구미 언론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서한을 일본 대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임병직이 워싱턴의 일본대사관을 방문했다. 마침 일본 대사는 외부 출장 중이어서 대사 직무를 대리한 일등서기관 히로타 고우키(廣田弘毅)와 면담했다. 히로타의 정중한 영접을 받은 임병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서한을 일본 천황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편지를 수

7) INS통신은 미국의 신문왕 윌리엄 허스트가 설립한 통신사다. 허스트는 전성기에는 26개의 신문과 13개의 잡지, 8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했는데, INS통신은 1909년 허스트 계열 언론에 뉴스를 공급하기 위해 창간한 민간 통신사다. 이 통신사는 미국 국내 뉴스에 이어 해외뉴스를 취급하고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미국과 해외 언론에까지 뉴스를 제공하여 AP·UP와 함께 미국의 3대 통신사로 성장했다. 1958년 5월 UP와 합병하면서 UPI로 명칭을 바꾸었다.

8) 일본 천황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관련 내용은 임병직 앞의 책, 128~129쪽 참조.

교했다.

임병직이 일본 대사관을 방문하여 일본 천황에게 보낼 편지를 수교한 관련기사는 윌리엄스가 미국 신문과 외국 특파원들에게 제공하여 세계 곳곳에서 보도되었다.

외국인 동원하여 한국 알리는 저술 활동

이승만은 구미위원부와 한국의 존재를 국제무대에 알리기 위해 외국인 필자 명의로 한국 관련 서적 발간을 추진했다. 이 작업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언론인 겸 문필가 프리데릭 매켄지(Frederick Arthur McKenzie)다. 그는 런던에서 발간되는 『데일리 메일』지의 극동 특파원으로 러일전쟁 당시 조선에 특파되어 종군기자로 활동했고, 조선의 의병 활동을 취재 보도한 사람이다.

그는 1904년 런던의 『데일리 메일』의 극동 특파원으로 러일전쟁에 종군한 것을 인연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기 시작했다.

매켄지는 일시 귀국했다가 한국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해 1906년부터 1907년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멸망해가는 대한제국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때 모은 자료와 현장 취재를 토대로 『대한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을 발간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매켄지의 책이 큰 인기를 끌었고, 중국어로도 번역되었으며 여기저기서 인용하기도 했다.

자신의 책이 서구인들의 찬사를 얻어 재판 요청을 받자 매켄지는 아예 새로운 글을 쓰기로 하고, 3·1운동사를 중심으로 또 다른 한국사를 저술하여 출간한 것이 『한국의 독립운동』(Korea's Fight for Freedom)이다. 매켄지는 이 책을 미국에서 집필했는데, 이때 이승만의 설명과 그가 제공한 자료를 참고했으며, 매켄지의 원고를 구미위원부 비용으로 대량 출판하여 한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구미위원부 사무실에는 서재필을 비롯하여 김규식, 노백린, 정한경, 윤치영, 명동(明東), 신형호, 남궁염 등이 와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승만을 비롯한 구미위원부 요원들은 미 국무성, 육군성의 고위 관리, 국회 상하원 의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여 한국민의 입장을 설득하고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전력을 쏟았다.

한국 독립을 지원하는 한국친우회 결성

구미위원부는 친분이 있는 미국인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규합하여 한국 독립을 지원하는 단체의 결성을 구상했다. 그 결실이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어진 ‘한국친우회’(The League of Friends of Korea, 한국우호연맹이라고도 표기한다)다. 이 단체의 회장은 플로이드 톰킨스 목사가 맡았는데, 미국 내에서 영향력 있는 유력한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이승만의 외교를 통한 독립활동에 큰 힘이 되었다.

이승만은 1919년 한 해 내내 한국친우회를 조직하고 각 지부를 순회하며 독립에 관한 연설을 하여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이승만은 혼자서, 때로는 서재필과 함께,

그리고 독립운동을 돕다가 한국에서 추방된 험버트 등과 함께 친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의 크고 작은 도시를 순방하며 강연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미국 내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은 이승만의 중요한 정치외교적 자산이 되었다. 덕분에 미국의 19개 도시에 지부가 결성되었다.

이승만은 열정적이고 유능한 변호사로 잘 알려진 프레드 돌프(Fred A. Dolph) 변호사를 구미위원부의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겼다. 각 지부는 회원의 포섭 과정에서 실업계 인사들의 모임인 상공회의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클럽, 교회, 각 협회의 임원 등 미국 사회의 명사들을 확보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미 상원의원 움직임 한국 독립결의안 의결 추진

이 무렵 이승만과 서재필은 찰스 토머스(Charles Thomas), 존 쉬르스(John Suruse) 등 미국 상원의원들과 접촉하여 피압박 민족의 국제적인 발언권을 인정해 주자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승만의 요청을 받은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1920년 3월, “한국과 아일랜드의 독립을 일본 및 영국에게 각각 승인하도록 권고할 것이며 국제연맹에 가입케 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⁹⁾

이 문제는 상원 회의에서 며칠 동안 논의되었으나 다른 나라의 내정에 속하는 일이라 미국 의회에서 논의할 성질이 못된다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4월 16일 토머스 의원은 내용을 약간 변경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표결에 돌입했으나 54대 22로 부결되어 한국독립 결의안 채택은 실패했다.

5)임시정부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

국내에서 발생한 3·1운동의 파장은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3월 16일에는 서울 내수동 64번지 현직 검사 한성오의 집으로 임시정부 수립 준비위원들이 비밀리에 모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정부 이름을 ‘한성정부’라고 정했으며, 각료 선출에 나서 집정관 총재(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 총장 및 내무부 총장 이동휘, 외무부 총장 박용만, 군무부 총장 노백린, 재무부 총장 이시영, 법무부 총장 신규식, 학무부 총장 김규식, 교통부 총장 문창범, 노동국 총판 안창호, 참모부 총장 유동열 등을 선출했다. 그리고 4월 23일 한성정부를 선포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성정부는 사람이 직접 모인 것이 아니라 페이지퍼상의 정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한성정부는 UP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선포 효과가 있었다. 특히 한성정부는 서울에서, 그것도 ‘국민대회’라는 절차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훗날 여러 정부의 통합과정에서 정통성을 가지게 되었다.

9) 임병직, 앞의 책, 134~135쪽.

3월 17일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가 선포되었고, 4월 10일에는 중국 상하이 금신부로에서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임시의정원(국회)을 구성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고, 11일 속개된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정부기구는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내각) 안에 내무·외무·재무·법무·군무·교통 등 6부를 두고 국무총리를 위시하여 각부 총장을 투표로 선출했다.

투표 결과 국무총리에 이승만,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재무총장에 최재형, 교통총장에 신석우, 군무총장에 이동휘, 법무총장에 이시영이 선출되었다. 이틀 후인 1919년 4월 13일, 내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했다.

서울과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임시정부가 선포되자 상하이에 와 있던 대표자들은 국내외에서 선포된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9월 11일 서울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임시정부를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고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공포했다. 그리고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임시정부는 민주와 민본(民本), 민권을 추구하는 민주공화제를 기본이념으로 삼았고, 임시의정원이라는 대의기관을 설치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에 의거한 민주공화제 정부가 출범했다.¹⁰⁾

시체 운반선 타고 상하이로 가다

이승만은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대통령으로 선임된 후에도 부임하지 않고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에 머물며 활동하자 임시 의정원(국회)은 1920년 3월 22일 '대통령 내도(來到)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승만은 서재필, 김규식, 노백린 등에게 구미위원부의 업무와 활동을 일임하고 상하이로 부임하기 위해 비서 임병직과 함께 워싱턴을 출발, 1920년 6월 29일 하와이에 도착했다.

이승만이 임정 대통령에 오르자 일제는 이승만에게 3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때문에 일본을 경유하는 선박을 이용할 경우 체포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상하이로 직행하는 선박을 구해야 했다.

이승만은 친구 윌리엄 보스위크의 주선으로 1920년 11월 12일 중국 노동자들의 시신과 목재를 싣고 하와이에서 상하이로 직행하는 네덜란드 선적의 화물선 웨스트 하िका 호에 몰래 숨어들었다. 두 사람은 이 배를 타고 12월 8일 상하이에 도착했다.

1921년 1월 1일부터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공식 집무

이승만은 1921년 1월 1일 신년 하례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임정에는 김구, 김규식, 이시영, 이동휘, 안창호, 이동녕,

10) 김희곤 외 지음, 『제대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식산업사, 2009, 11~12쪽.

신규식, 신익희, 조소앙, 여운형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대통령 이승만을 맞은 임시정부의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당시 임정은 아침 8시 30분에 내각 요원 전원과 직원들이 강당에 모여 애국가를 부르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그런데 애국가를 한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면 누가 더 부르라 하지 않는 데도 몇 번을 연거푸 불렀다. 그 후 업무 지시와 영도자의 훈시를 듣고 조례를 마쳤다.

당시 중국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만주를 거쳐 국내로 진격하여 실력으로 독립을 쟁취한다는 무장투쟁론에 심취해 있었다. 심지어 상하이에는 외교기관만 두고 군사와 관계된 기관은 러시아령이나 만주로 옮기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념 대립과 노선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승만은 임시정부와 한국이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떠오른 일본에게 승리할 수 없으며, 세계 열강에 평화적인 호소를 통한 외교독립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선명성을 앞세운 임시정부는 미지근한 외교를 통한 독립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1921년 4월 17일 박용만, 신채호 등 무장투쟁파는 북경에서 군사통일회를 소집하고 상하이 임정을 부인했다. 4월 24일 북경군사통일회는 이승만 등의 '매국매족죄'를 성토하고, 상하이 임정과 임시의정원을 불승인하고 이승만과 임시정부가 시행했거나 시행할 시책을 모두 무효화 한다는 과격한 전보를 상하이로 보냈다. 4월 27일 군사통일회는 박용만 등 17인 공동명의로 임정과 의정원을 불신임한다고 통첩을 전달했다.

극심한 내분으로 인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1921년 5월 17일 "외교상 긴급과 재정상 절박"을 이유로 상하이를 떠난다는 교서를 의정원에 보냈다. 그가 상하이를 떠나고자 했던 이유는 북경의 의열단 단장 김원봉과 단원 10여 명이 이승만에게 모종의 테러를 가하기 위해 상하이로 이동하여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VI. 다시 미국에서 외교독립운동

이승만은 1942년 3·1절에 맞춰 1919년 4월에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했던 대한인 총대표회의(제1차 한인의회)와 같은 대중 집회를 계획했다. 회의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미국인들로 구성된 한미협회(The Korean American Council)가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다.

한미협회는 이승만이 1939년에 워싱턴에 와서 지난날의 한국친우회(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를 부활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진주만 사건으로 상황이 급박해지자 1942년 1월 16일에 서둘러 결성한 단체다. 이사장은 워싱턴 파운드리 감리교회의 목사이며 미 의회 상원 원목(院牧)인 프레드릭 해리스(Frederick B. Harris) 목사가 맡았으며, 회장은 주 캐나다 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크롬웰이었다.

해리스 목사는 미국 교계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서, 문필에도 뛰어난 재질

이 있어 『워싱턴 스타』지의 칼럼니스트로서 일요일마다 기고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신문에 칼럼을 통해 한국 독립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고, 설교나 강연을 통해 한국 독립 문제를 자주 언급했다.

한미협회를 움직이는 핵심은 이사회와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 구성원들이었다. 1943년 1월 현재 이사회 멤버는 해리스, 크롬웰, 스태거스, 윌리엄스, 프란체스카를 포함한 8명이 올라 있었다. 또 전국위원회 명단에는 서재필, 헐버트, 중국 중경(重慶·충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지 피치(George A. Fitch) 목사의 부인 등 28명이 등재되어 있었다. 피치 목사의 부인은 1932년 상해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 당시 네 명의 한국인을 자신의 집에 한 달 동안 숨겨주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김구 주석이었다. 또 중국 작가 임어당(林語堂), 중국군 대령 치아 예첸 박사가 전국위원회에 등재되어 있었다.

이들의 직업은 상하원 의원, 주지사, 외교관, 대학 총장, 교수, 목사, 출판사 회장, 잡지 편집인, 작가, 사회사업가, 현직 군인 등 다양했고, 박사가 15명이나 되었다. 한미협회의 멤버들은 대부분이 미국 주류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론 주도층이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미국 주요 언론과 의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미협회를 결성한 것이다.

한미협회는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임시정부가 대일전(對日戰)에 참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승만은 미국의 승인을 받은 임시정부가 존재해야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하여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한미협회의 후원을 받아 워싱턴의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임병직, 정한경, 장기영, 김세선, 이원순 등과 함께 1942년부터 1945년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미국 무부, 전쟁부, 백악관 등에 임시정부의 승인과 무기대여를 요청했다.

이승만의 상투를 잘라준 애비슨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 명예교장을 마지막으로 43년 동안의 한국 선교생활을 마치고 1935년에 미국으로 돌아와 있었다. 올리버 애비슨은 이승만의 초청으로 1942년 9월 22일 워싱턴에 와서 한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돕는 방안을 상의했다. 아펜젤러의 딸이자 이화여전 교장을 역임한 앨리스 아펜젤러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승만은 1942년 12월 애비슨과 헐버트를 앞세워 한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미협회와는 별도의 조직인 ‘기독교인 친한회’(The Christian Friends of Korea)를 조직했다.¹¹⁾ 애비슨은 8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부탁을 받아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미국 선교사 600명에게 장문의 편지를 발송했다. 애비슨은 이 편지에서 아시아에 기독교 문명을 전파하는 일은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한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또 한국인들의 대다수는 이승만을 그들의 지도자로 신뢰하고 있다고 썼다.¹²⁾

11) 안종철, 「문명개화에서 반공으로」, 최상오·홍선표 외 지음,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165~166쪽.

12) 기독교인 친한회 관련 내용은 손세일의 비교 평전(65) 「한국 민족주의의 두 유형-이승만과 김구」,

기독교인 친한회의 회장은 폴 더글러스 아메리칸대학교 총장 , 서기는 조지 피치 부인, 재무는 윌리엄스, 법률고문은 스태거스, 이사진에는 연방대법원 판사 프랭크 머피 등 미국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승만은 ‘한미협회’와 ‘기독교인 친한회’를 중심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편지 쓰기 운동을 벌였고, 상하원 의원들을 접촉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운동을 추진했다. 친한회 회장인 폴 더글러스 총장과 서기인 애비슨 목사는 두 사람 공동명의로 편지에서 “조선총독부가 선교사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려 한국에서 기독교가 말살되고 있다. 동양의 기독교는 자유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은 미국 여론의 즉각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미국 주류사회의 인사들에게 보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적성국가 외국인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1943년 12월 1일 발표된 카이로 선언의 탄생에도 크게 기여했다. 카이로 선언에서 종전 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선언의 초안을 작성한 루스벨트의 특별보좌관 해리 홉킨스였는데,¹³⁾ 그는 ‘한미협회’와 ‘기독교인 친한회’의 최우선 접촉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

미국 체신부는 1944년 11월 2일 태극마크가 들어간 5센트짜리 한국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이 무렵 미국 체신부는 추축국에 점령되었다가 해방되고 있는 나라들의 국기를 도안으로 한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그러한 나라의 하나로 인정받은 셈이다.

한국 기념우표 발행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이승만의 친구인 언론인 윌리엄스였다. 이 아이디어를 들은 이승만은 미 체신부 장관 프랭크 워커(Frank C. Walker)를 만나 한국 기념우표를 발행해 달라고 제의하여 뜻을 이루었다. 워커는 민주당 전국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루스벨트와 가까운 거물이었다.

“한인 게릴라 부대 창설계획과 중국의 임시정부 지원방침 전환”, 『월간조선』, 2007년 8월호 참조.

13)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1996, 58쪽.

<토론문>

좌익이 지운 독립운동 “실력양성운동과 인촌의 길”

주익종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사학계의 독립운동사 인식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선 3.1운동과 초기 임시정부 이후의 독립운동으로서 폭력 무장투쟁만 꼽는다. 다음 7가지다.

표1) 교과서상 초기 임시정부 이후의 독립운동

독립운동	비고
① 무장독립전쟁(김좌진, 홍범도의 청산리 전투, 봉오동전투) ② 의열투쟁 - 의열단, 한인애국단 ③ 국내 민족유일당 신간회	1920년대 혹은 1930년대 초
④ 혁명적 노동조합, 농민조합 운동 ⑤ 만주지역의 항일유격투쟁(양세봉, 김일성 등) ⑥ 중국 관내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김원봉) - 조선의용군, 독립동맹(김두봉) ⑦ 임시정부와 광복군	1930년대 이후

우선, 한 눈에 봐도 편파적이다. 국제정치에 참여해서 독립 기회를 찾은 외교독립운동과 식민지 한국 내에서 전개된 실력양성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로, 일제에 대한 항거면 다 좋다는 식이며 각 독립운동의 지향점에 무관심하다. 1930년대 이후의 독립운동인 ④~⑦ 중 오직 하나 ⑦을 빼곤 모두 공산주의 계열이거나 그에 동조적이었다. ④~⑥은 북한 공산정권 수립으로 귀결되었으니, 결국 독립운동을 가르친다 하면서 남의 집, 아니 나의 원수의 집 이야기를 내 이야기인양 가르치는 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배우는 게 당연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운 독립운동-실력양성운동

실력양성운동은 교육과 산업을 통해 장래 독립을 위한 역량을 키우려 한 독립운동이다. 기원은 구한말 계몽운동에 있었다. 러일전쟁 후인 1905년 일제가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해 내정까지 간섭하면서 고종의 전제 공포정치가 끝났고, 백화제방(百花齊放) 시대가 열렸다. 시대사조는 문명개화와 자강, 사회개혁, 신국가건설 등이었고, 계몽운동이 펼쳐졌다. 그중에서도 힘을 길러 장차 국권을 회복하자는 자강운동이 대두했다. 1907년 수립된 신민회가 대표적이었다. 청일전쟁 후 서울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평양에 돌아가 독립협회 지회 활동을 한 안창호는 1907년 평안도와 황해도, 서울의 인사들을 규합해서 비밀결사 신민회를 만들었다. 신민회는 국내에선 교육과 산업을 진흥하고 해외에선 무장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통해 장차의 독립역량을 기르려 했다.

안창호의 수제자 격인 이광수는 한일합방 무렵 실력양성운동의 대표적 구현 사례인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체험한 닭싸움의 일화로 실력양성론을 설명한 바 있다. 이광수는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교주 목사집의 수탉에게 자기집 수탉이 쪼이고 암탉까지 빼앗기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자기 수탉에게 쇠고기와 구리가루를 먹여 힘을 기르게 한 후 싸움을 붙여 마침내 교주네 수탉을 이기게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날 쇠고기 한 근과 구리가루 두 돈쯤 어치를 먹고 며느리발톱을 날카롭게 갈아서, 바다 건너에서 온 일본 수탉을 물어뜯어 이기는 길뿐이다. 쇠고기와 구리가루란 다음 아닌 교육과 산업이다.”

실력양성운동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 일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평양에선 한국인 수중에서 메리야스공업과 고무공업이 발달했으며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확산되고 개신교 계통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 교육기관이 다수 성립했다.

실력양성운동의 최고 실천가- 고창 인촌 김성수 일가

하지만 당대의 가장 뛰어난 실력양성운동 실천가는 호남의 대지주 인촌 김성수, 수

당 김연수 일가였다. 김요협(1833~1909) - 기중(1859~1933), 경중(1863~1945) - 성수(1891~1955), 연수(1896~1979) 3대에 걸친 조선 굴지 대지주가로의 성장과 교육, 공업, 언론 사업의 실천은 전통 시대 조선인이 근대의 한국인으로 변화했는지를 보여 준다.



그림1 고창 김 씨 일가 가계도

전남 장성 출신의 김요협은 전북 고창의 재력가에 장가를 가서 근검절약으로 초기 재산을 모았고, 이후 두 아들은 소작료 수입의 재투자, 고리대, 지방관 역임 등을 통해 대지주로 성장했다. 기중 가는 1918년에 697정보(1정보는 3천평), 경중 가는 1924년에 1,916정보를 소유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이재에만 열중하지 않고 구한말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호남학회 활동에 참여했고, 신식학교도 세웠다. 김성수(1891년생)는 1908년 독일 유학해서 세이소쿠(正則)영어학교-긴쵸(錦城)중학교-와세다대학교 예과.본과 정경학부(1914년 졸업)를 거쳤다. 동생 김연수(1896년생)도 1911년 독일 유학해서 일어학교-아사부중학교-제3고등학교-교토제국대학 선과.본과 경제학부(1921년 졸업)를 거쳤다.

김성수는 일본에서 실력양성주의에 공감하고(일본 따라잡기 catch-up), 훗날의 사업동지를 얻었다. 동향 출신의 송진우, 백관수 외에도 이강현, 현상운, 최두선, 이광수 등이었다. 김성수는 귀국 후 실력양성운동에 투신했다. 물론 그 부친 대에 축적한 재력을 투입하는 일이었다.

우선, 교육사업이다. 김성수는 1915년 중앙학교를 인수해 1917년 북악산 기슭의 새 부지로 옮겨 석조 2층 건물을 짓고 1921년 정규 중등학교로 승격시켰다. 1932년에는 천도교에서 경영하다 운영난에 빠진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후 역시 안암동 새 부지로 학교를 옮겨 본관과 도서관을 신축하는 등 일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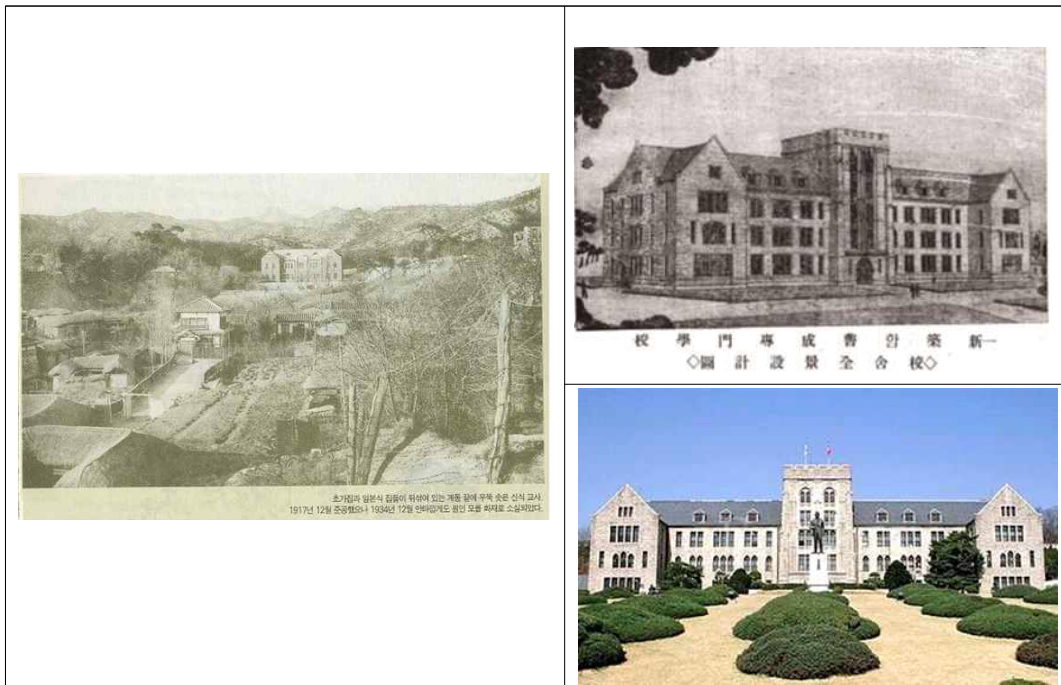


그림2. 중앙고보와 보성전문학교

이 중앙고보와 보성전문학교에서 수많은 인재가 양성되었으며, 또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러 한국인 지식인들을 교사와 교수로 채용하였다. 중앙고보 졸업 후 경성방직에서 일하다 경성제대에 입학한 한글학자 이희승,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수석 졸업한 후 보성전문 교수로 재직하다가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등은 그 예다.

또 중앙학교는 3.1운동의 책원지(策源地)이기도 했다. 교주 김성수와 교장 송진우, 교사 현상윤이 월슨 14개조에 따른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던 중 도쿄 유학생 송계백의 내방을 계기로 천도교 측과 회합하여 이승훈 등 기독교 측까지 끌어들이 만세선언을 조직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탑골공원에서 학생시위까지 준비하였다.

둘째로, 김성수는 근대식 공업회사도 세웠다. 그는 1917년 한국 최초의 방직 기술자 이강현의 권유로 경성직뉴(주)를 인수했다. 본래 한복의 대님, 허리끈 등을 직조하던 경성직뉴에 소폭직기를 설치해서 소폭직물 직조를 시도했다. 그러나 1910년대 말 조선에는 회사 붐이 불었고 방직업에서도 일본인 업체로 1917년 조선방직(주)이 설립되었다. 김성수는 이에 아예 근대 방직회사를 만들기로 해서, 1918년부터 전국을 편력해서 유지들을 규합했다. 1919년 10월 납입자본금 25만원으로 경성방직(주)을 설립했다. 당초 김씨가 지분율은 14%에 불과했다. 28세 김성수, 31세 이강현, 34세 박용희 등 30살 전후의 청년들이 주역이었다.

비판자들은 김성수 일가의 지주경영 수익성이 떨어져서 공업 투자를 꾀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성수가 공업투자를 추진한 1910년대 후반은 쌀값 상승기로 지주경영의 수익성이 매우 좋았으며, 오히려 공업투자를 한 후 1920년 전후 공황이 와서 지주경영과 면방직 공업 모두 어려움에 처한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삼품(三品, 면화, 면사, 면포) 투기로 망할 뻔한 위기를 맞는다. 1920년 4월 공황이 덮치자 결국 자본금의 절반 이상인 총 13만 2,550엔 손실을 봤다. 이 좌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김성수가 집안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식산은행에서 8만 2천엔을 차입했고, 증자를 시도해 결국 동생 김연수가 25만엔을 들여 실권주를 매입했다. 김씨가 지분율이 65%가 되었다. 사업의지와 자금력을 가진 책임주주가 등장해서 지배구조가 안정화되었다.

영등포 1만 6천평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고(공사비 11만엔), 직기 100대 등 기계를 설치(11만 5천엔)해서 직포회사로 출발했다. 1923년 1월 조업을 개시했다. 1923년 3.9만필, 1926년 9만필, 1929년 19.9만필로 생산을 늘렸다. 시장으로서 서울보다는 경기, 북부 등 주변지를 공략했다. 한국인 상인 네트워크(포목상조합 등)를 활용했으며, 그 후 서울에 입성했다.

학습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생산경험 누적에 따라 직기 1대당 생산량과 직공 1인당 담당 직기 수가 늘어 노동생산성이 올랐다. 이에 제조원가가 낮아지고 필당 노동공임도 하락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 결과 1920년대에는 BEP 수준의 손익을 기록했다. 감가상각 감안시 손실이었다. 이 점은 조선방직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면업 불황 때문이었다.

1930년대 식민지 한국에서는 전반적인 공업화 러시 속에서 면공업에 일본 대방적 자본이 진출(2개 회사, 4개 공장 건설)한 결과 수입대체가 완료되었다. 경성방직도 김연수가 경영을 맡으면서 방직공장을 설치해서 조선4대방의 일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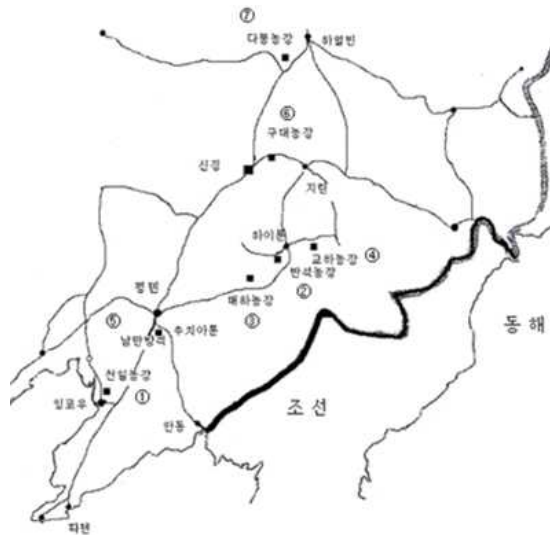


그림 3. 일제말 김연수의 만주 사업

1937년 이후 전시체제기에 전시통제로 생산은 위축되었으나, 공정가격 덕분에 고수익을 올렸다. 전시체제는 생산업체들에게는 따듯한 온실이었다. 그러나 김연수는 안온한 온실에 머물지 않았다. 일제의 침략으로 확장된 제국으로 진출했다. 첫째로 경성방직의 자회사로 남만방직(주)을 설립했다. 이는 자본금 1천만 엔, 방기 3만 200추, 직기

1,129대, 종업원 1,300명으로서 경성방직보다 더 큰 회사였다. 또 삼양사는 만주에 6개 농장을 열어 소작경영을 시작했다. 총 규모는 3,822정보로서 역시 한국내 8개 농장 2,500정보보다 컸다. 셋째로 기타 삼림 개간회사를 만들고, 호텔과 맥주회사를 인수했다. 이 '제국'에 대한 풀 베틱은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의 분출이라 할만 했다.

1935년 문학가이자 언론인 이광수는 이 경성방직을 뒤에 오는 '대군의 척후'라 불렀다. 상공업 조선의 시대가 열려서 이제 한국인 상공업의 대군이 몰려올 것인데, 그 척후병으로 먼저 온 것이 공업에서는 경성방직이요, 상업에서는 화신(박흥식)이라는 말이었다. 경성방직에 대해서 미 하버드대 교수 에커트는 경성방직이 일본 제국주의 덕분에 발전한, 그 후예라는 책을 썼다. 그러나 경성방직의 경영사를 세밀히 살펴보면, 김성수와 김연수가 일본 제국주의가 제공한 환경을 활용한 것일 뿐 일본 제국주의의 보호와 육성, 지원 덕분에 발전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

<p>경성방직이 일본 제국주의가 보호 육성 덕분에 발전했다고 본 카터 에커트 교수의 저서</p>	<p>경성방직이 실력양성 이념 아래서 학습을 통해 근대 공업회사로 발전했다고 본 주익종의 저서</p>

표 1. 경성방직에 대한 두 저서

셋째로 김성수는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해서 1940년 일제가 강제로 폐간할 때까지 계속 경영했다.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은 3.1운동의 소산이었다. 3.1운동의 결과 한국인은 자신의 대변지를 갖게 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동아일보는 일제에 대해 '조선인' 본위의 정책을 실시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한국인의 이익을 옹호했다. 친일귀족실업인이 창간한 조선일보가 조진태-송병준-신석우-임경래-방응모 등으로 계속 사주가 바뀌며 오래 동안 경영이 불안했던 것과 달리 동아일보는 김성수 일가의 지속적 투자 덕분에 안정 속에서 한국인 지식인의 일대 보금

자리 역할을 했다.

일제하에서 고창 김씨가와 같은 규모의 대토지를 소유했던 지주는 여럿 있다. 지주 경영 외에 제대로 된 기업을 세운 지주가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하면, 교육과 산업, 언론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기업을 건설한 인촌 일가의 업적은 단연 돋보인다.

대한민국의 Founding Fathers를 사수(死守)하자

김성수를 비롯한 유력 자산가, 지식층 출신의 민족주의자들은 1945년 해방 후 9월에 한민당을 결성했다. 이들은 좌익과 맞서 싸우며 이승만을 도와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송진우, 장덕수 두 지도자가 암살당하는 비극도 있었다. 이 점에서 실력양성운동은 바로 대한민국을 만든 독립운동으로서, 독립운동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980년대 민중사학에 감염된 한국사연구자들은 이후 집요하게 실력양성파를 친일파로 몰아, 독립운동사,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려 했고, 2000년대 노무현 집권기에 민관 두 차원의 친일파 단죄 작업을 통해 그에 거의 성공했다. 좌익은 실력양성운동이 기껏해야 타협적 독립운동이었을 뿐 전시체제기에는 일제에 협력하는 반민족 활동으로 그 정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직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김성수와 김연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인물로 판정했다. 후속 조치로 보훈처가 김성수의 1962년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성북구는 고려대 앞 인촌로를 고려대로로 개명했으며, 고창군 역시 인촌로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은 학교 본관 앞의 인촌 동상 철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김성수	김연수
1949 반민특위	해당 없음	반민족행위자 구속기소, 무죄 판결
2009 정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 건국훈장 서훈 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2009 친일인명사전	친일인물	친일인물

표2. 김성수를 둘러싼 친일 논란



표 3. 고려대에서 벌어진 인촌 지우기

그런데 김성수나 김연수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혹은 친일인물로 판정된 것은 그간 숨겨온 그들의 친일행위가 새로 드러나서가 아니다. 그물망이 넓은 그물대신 좁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작은 물고기까지 잡히듯이, 판정 기준을 바꾼 결과일 뿐이다. 김성수에 대해 당대에 친일 시비가 있었지만, 이는 좌익 측 공격일 뿐, 사회적 합의가 아니었다.

반민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대로 악질적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려 한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반민특위는 688명을 취급했다. 여기에 당연히 김성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대 제1의 기업가였던 김연수는 포함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성수가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인물이 된 것은, 노무현 집권기의 정부 위원회와 민간 위원회가 김성수가 포함되도록 행위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과하다.

일례로 일제하 관료로서 각기 반민족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인물로 선정되는 자의 기준을 살펴보자. 아래 표에서처럼, 반민법은 ‘군, 경찰의 관리, 관공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또는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반면, 친일반민족행위법은 ‘일정 직급, 계급 이상의 관리나 헌병, 경찰으로서 민족구성원의 감금, 고문, 학대에 앞장 선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보았다. 나아가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느 직급 이상의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배의 하수인이 된 자를 친일행위자로 판정했다. 각기 ‘악질적’인 자, ‘탄압에 앞장선’ 자, ‘하수인’이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바꾸면, 당연히 김성수를 친일인물로 판정할 수 있게 된다.

	반민특위 조사대상 반민족행위자	노무현정부 위원회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물
정의	(제4조 6, 9항)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2조16항)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또는 준경의 헌병분대장 이상 또는 경찰간부로서 주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의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배의 하수인이 된 행위
key word	“악질적”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탄압에 앞장선”	“하수인”

김성수나 김연수가 일제말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당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았다. 건국기의 당대인들은 김성수를 친일파로 몰지 않았다. 아니, 김성수의 도움을 받은 이승만이 당대인들을 이끌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점에서, 김성수는 건국의 주역이었다. 김성수는 이윤영을 위해 종로구에 출마하지 말아달라는 이승만의 요청을 선선히 받아들여 영광스런 제헌국회 의원 자리를 양보했다. 이승만은 그에게 초대 재무부 장관을 제안했으며, 제2대 국회는 1951년 그를 제2대 부통령으로 선출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후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었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임도 부정되었다. 50여년 전의 당대인들이 바보 멍청이라는 말인가. 이는 늦게 태어난 행운을 누리는 자들이 멋대로 기준을 만든 결과일 뿐인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노무현 집권기의 야당 한나라당이 그 법안 제정에 동의한 것은 완전히 정신나간 행위였다.

독립운동사에서 실력양성파를 지우면 대한민국은 정당성을 잃는다. 대한민국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세운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형편없는 대한민국은 “비타협적 항일운동가가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항할 근거가 없어진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투항해서 그 노예가 되는 연방제의 길이 필연적 수순이 된다. 실력양성파를 지우면 대한민국은 소멸한다. 김성수를 비롯한 실력양성파를 독립운동가로 되살리는 게 현하 전쟁의 또 하나의 전선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의 청년 지식인

전창렬

(한국대학생포럼 학술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민지 시기 조선 청년 지식인’을 주제로 토론에 임하게 된 한국 대학생포럼 학술국장 전창렬 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식민지 조선의 많은 청년들은 민족의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혹자는 암살, 테러, 독립군 창설 등 무장투쟁의 길을 걸었으며, 혹자는 언론, 교육, 경제활동 등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기르는 실력 양성의 길을 걸었고, 혹자는 일제의 조선 합병의 부당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등 외교독립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는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조선의 청년 지식인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항일무장투쟁을 진행한 이들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 교과서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총과 칼을 들고 연해주, 만주 그리고 조선에서 독립군 창설, 암살, 테러 등의 활동을 하며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을 한 조선 청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가 바로 안중근 의사 입니다. 나이 31살의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 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다렌 뤼순지역에 위치한 뤼순감옥에 수감되었으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항소를 준비하자 그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가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刑)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라고 한 말은 지금까지도 많은 어머니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장투쟁운동은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장투쟁운동 단체들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장투쟁운동의 특징상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자본가들은 무장투쟁운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은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중 속사포 역을 맡은 조진웅이 의열단원들에게 사례금을 요구하는데 가진 돈이 없어 찢절매는 장면을 통해 무장투쟁단체들이 얼마나 자금난을 겪었던 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무장투쟁단체들은 친일파를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자본가들의 집을 급습하여 그들을

암살하고 재산을 탈취하였습니다. 폭력을 또다른 폭력을 부르며 살인은 또다른 살인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장투쟁단체들이 친일파, 일본 관리, 일본군을 암살, 살해, 공격함에 따라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더 큰 보복을 자행하였습니다. 무장투쟁운동이 일제 치하의 조선 민중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은 자명하나 폭력이라는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한계점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외교독립운동을 진행한 이들

외교독립운동은 열강에 대한 외교교섭을 중심으로 하여 조국의 독립을 이루어 낸다는 독립운동의 방식입니다. 이는 임시정부에서 독립노선의 한가지로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당시 조선 청년들이 외교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외교독립운동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짧게나마 이야기 하려 합니다. 외교독립운동을 주장한 이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의 저서인 ‘일본의 가변을 벗긴다’에서 일본 천황 전체주의의 기원과 실상을 분석하고 일본의 미국 침략가능성을 경고하였으며, 한국의 독립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 책이 출간된 지 6개월 만에 진주만을 공습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국제정세를 읽는 능력이 탁월하였으며 위대한 협상가였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외교독립운동은 광복 이후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은 한국을 일본의 전쟁 지원국으로 인식하고 전범 지원국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미국 측에 광복군의 수를 뺏기기 하여 말하는 등의 처세술을 발휘하여 이를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3. 실력양성운동을 진행한 이들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인하여 일제에 외교권 등 일부 국권을 빼앗기자 많은 조선 민중들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조선민중들의 완강한 항쟁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국권을 완전히 빼앗긴 것은 ‘힘’과 ‘실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실력양성운동은 민족의 ‘힘’과 ‘실력’을 양성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앞서 무장투쟁운동 과정에서 언급한 안중근 의사는 실력양성운동을 진행한 이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6년 부친의 별세 이후 평안남도 진남포로 이사하여 민족의 실력양성을 위한 계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의사는 서우학회에 가입한 뒤 진남포에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평양에 석탄을 채굴하여 판매하는 광산회사인 ‘삼합의’를 설립하여 산업진흥운동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안 의사는 국채보상기성회 관서지부를 조직하여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실력

양성운동은 이후 1920년대 초, 다시 대두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안창호 선생도 실력양성 활동을 한 식민지 청년이었습니다. 1906년 을사조약 체결 후 안창호 선생은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여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청년학우회를 조직하여 민족의 지도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는 또한 대구에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출판사업을 진행하고 평양에 도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민족산업육성에도 힘썼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미국 핵폭탄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냈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 땀 흘린 이들의 업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외교 독립 운동과 무장 투쟁 운동을 진행한 이들 덕분에 우리는 전범지원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실력양성운동을 진행한 이들의 자본들은 해방 후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났지만 좌파강점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파쇼를 외치던 386 세대 정치인들은 오히려 전체주의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오로지 사회주의적인 정책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 지식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설혹 우리의 힘으로 좌파강점기를 탈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좌파강점기를 탈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흘린 땀은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흔들리지 않는 독심으로 좌파강점기로 부터의 광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